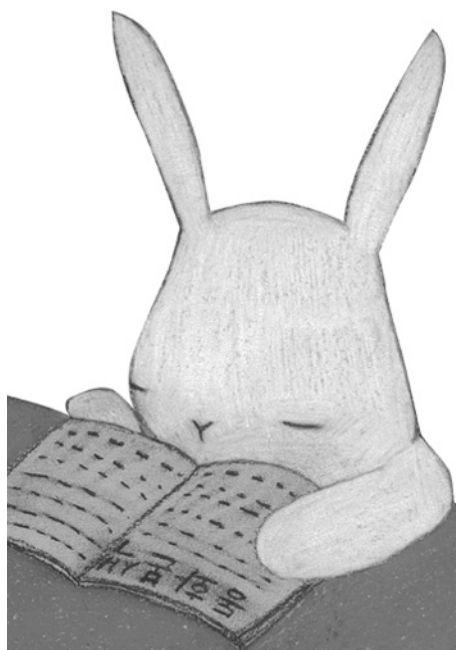


# 동화본색



## 동화본색 제1집을 내면서

도서관 엘리베이터에서 동화수업 수강신청을 받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저 편하게 쓰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동화는 아이들의 이야기만 쓰면 되는 줄 알았고 어릴 적 생각을 하면서 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동화라고 해서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어른인 내가 대충 그렇게 쓰려고 했던 생각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이었는지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그때 생각을 하면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동화는 동심으로 돌아가서 글을 쓰면 될 것이다.

아닙니다.

동화는 어린아이들의 감성을 건드리기만 하면 될 것이다.

아닙니다.

동화는 아이들만 보는 글이다.

아닙니다.

동화는 그야말로 동화니까 동화적인 이야기만 쓴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동화를 배우면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세계는 합리적이면서도 엉뚱합니다. 환상적인 상황이라

---

도 진실함은 있어야 하고 교훈이 중요한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우려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해리포터 시리즈를 읽고 있습니다.

그 무한한 영풍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이제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동화본색' 그루터기에서 영풍하고 발랄하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오롯이 피어나서 온 세상을 날아다닐 것을 감히 장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작은 사물에 대해서도 세심한 촉각으로 아이들의 눈을 빌어서 영롱한 시선으로 살펴보고 보듬을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 낸 세상이, 책이라는 활자를 통해 많은 아이들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감동을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1년, 그때에 우리들은 참 열정적인 삶을 살았었다. 그런 후일담을 만들고 싶습니다.

2011년 8월 한여름에  
동화본색, 왕언니 김삼선 드림



여는 글 김삼선

2



생바라기를 지키는 치코 김만경

7



아라백련의 꿈 김삼선

20



기억자 할머니의 과외수업 호박감자 김윤희

29



라면 먹을까? 김종속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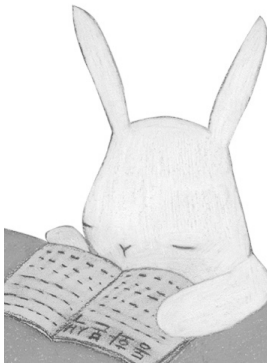
역시 우리 동네 친구들 김한나

51



낙서 외 2편 박민애

59





	<b>화성인의 초대</b> 박이랑	62
	<b>오륙도 이야기</b> 손혜원	76
	<b>인생 체험 센터</b> 안미란	89
	<b>엄마도 처음이에요</b> 이경미	103
	<b>푸른 황새 씨</b> 임제다	109
	<b>내 날개의 비밀</b> 임채령	122
	<b>우리만의 큰 세상</b> 차숙정	135



# 해바라기를 지키는 치코

김만경

“저리 가!”

작고 까만 뱀이 식식거리는 소리를 내며 다른 뱀들을 내쫓았습니다.

“치코 아저씨, 우리도 해바라기 구경할래요.”

쫓겨난 뱀들이 해바라기를 향해 고개를 빼 들었습니다.

“안 돼! 그러다가 해바라기가 다치면 어찌려고. 그냥 거기서 구경해.”

치코는 친구들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왜 치코 아저씨는 해바라기 밭에 들어가도 되고, 우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좀 들어가서 본다고 해바라기가 다 망가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린 뱀들이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얘들아 그만해. 치코 아저씨가 이 해바라기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있잖아.”

머리가 세모난 뱀이 어린 뱀들을 말렸습니다.

“치치 아저씨. 치코 아저씨 좀 말려 줘요. 혼자 해바라기 밭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시끄러! 아무것도 모르면서.”

치코는 울 듯한 표정으로 화를 버럭 내며 치치와 어린 뱀들을 밀치고 뛰쳐나갔습니다.

“치코 아저씨! 어딜 가는 거예요?”

치코는 대답 없이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치코 아저씨는 내버려 두자. 많이 속상할 거야.”

“치치 아저씨는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치코 아저씨가 왜 해바라기 밭에 못 들어가게 하는지도 알고 있지요?”

어린 뱀들이 치치에게 알려 달라고 졸라 댔습니다.

“그건 치코가 바깥 숲으로 날아가게 되었을 때였어.”

치치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다들 치치를 둘러쌌습니다.

“날아가요?”

“어떻게요? 날개도 없는데?”

다들 치코가 날아갔다는 말에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야. 치코는 숲에서 제일 높은 나무에 올라 바깥 숲을 내려다보고 있었어.”



‘우와, 정말 넓구나.’

치코는 넓은 숲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지루해진 치코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앗, 여기가 어디지?”

서늘한 기운에 눈을 떠 보니 낯선 곳이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부러져 이곳에 떨어졌나 봐.”

치코는 주위를 훑훑 둘러보았습니다.

“어쩌지, 여긴 뱀 숲이 아닌가 봐.”

치코는 지금 새와 사람들이 있는 위험한 바깥 숲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어쩌지, 어쩌지.”

치코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안절부절못했습니다.

가까이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을 땐 치코는 심장이 튀어나올 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치코는 눈을 질끈 감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요? 감았던 눈을 살며시 뜨니 주름살이 가득한 늙은 사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치코는 사람에게 잡혀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산 채로 껌질이 벗겨질 수도 있겠지요. 치코는 무서워서 도망도 못 가고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자.”

노인이 주름이 자글자글한 팔을 내밀었습니다.

치코가 가만히 있자 노인이 치코 바로 앞에서 팔을 흔들었습니다.

“왜? 내가 먹기에는 너무 큰데?”

치코의 말에 노인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독은 있니?”

“없는데, 독 있는 뱀을 찾는 거야?”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른 뱀이나 찾아봐야겠구나.”

“잠깐, 가지 마!”

치코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나 좀 도와줘.”

“음, 어떻게 도와줄까?”

노인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날 집으로 데려다 줬으면 좋겠어.”

“집이 어딘데?”

“저 위의 숲.”

치코가 고개를 들어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 위의 숲이라니, 혹시 뱀 숲?”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응.”

“그런데 이렇게 먼 곳까지 어떻게 오게 된 거냐?”

“그런 건 알 거 없잖아.”

치코는 당황한 듯 몸을 뒹 돌렸습니다.



“알았다. 그전에 이름이나 알려 주렴. 난 해바라기 노인이라고 한단다.”

“해바라기 노인이라고? 이름 참 이상하네. 난 치코야.”

“뱀 숲이라. 반나절은 꼬박 걸어야 되겠구나.”

해바라기 노인이 뱀 숲을 올려다봤습니다.

“자, 출발하자고.”

어느새 해바라기 노인의 어깨에 올라탄 치코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해바라기야?”

심심해진 치코가 물었습니다.

“아마 집 주변이 온통 해바라기라서 그럴 거야.”

해바라기 노인은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뭔가를 꺼내 보여 주었습니다.

“보렴. 이렇게 항상 해바라기 씨를 가지고 다닌단다.”

“해바라기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치코의 말에 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먼저 간 할멈이 좋아했었지.”

“.....”

“.....”

“내가 어쩌다 여기 오게 됐는지 궁금하지? 궁금하지?”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치코가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궁금하구나.”

“낮잠을 자다 깨어 보니 여기였어. 나뭇가지를 타고 여기까지 날아온 걸 거야.”

“무서웠겠구나.”

“무, 무섭긴 무슨. 난 모험을 좋아하는 뱀이라고. 모험을 더 하고 싶지만 치치는 내가 없으면 안 되거든. 아, 치치는 아주, 아주 친한 친구야. 지금쯤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거야. 그래서 돌아가는 거야.”

“넌 무척이나 용감하구나.”

한참을 걷자 피곤해진 해바라기 노인은 나무 그늘에 앉았습니다.

“다른 가족은 없어?”

치코는 해바라기 노인의 어깨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지.”

“있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젠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

해바라기 노인은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버릇이 나빠질까 봐 엄격하게 대했지. 따뜻한 말 한마디 해 준 적이 없었어.”

치코는 멀뚱멀뚱 해바라기 노인을 보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내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할멈의 장례식이 끝나자 집을 나가 버렸어.”

해바라기 노인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들 아들을 기다리지 말라고 했지만, 줄곧 기다리고 있었어.  
‘이번에는 정말 잘해 줘야지.’ 하고 다짐을 했었지.”

해바라기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마주 비비더니  
일어섰습니다.

“그럼, 다시 떠나 볼까?”

치코는 잠자코 해바라기 노인의 어깨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너무 오래 한 것 같구나.”

“독이 있는 뱀은 왜 찾는 거야?”

치코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해바라기 노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설마, 죽이려고?”

치코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치코는 사람이 독이 있는 뱀을 잡아 죽인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절대 그런 건 아니란다.”

해바라기 노인은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럼, 왜 찾는 건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치코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편지를 한 통 받았단다. 난 당장 편지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지. 사람들이 그러더구나. 아들 녀석이 보란 듯이  
아버지 앞에 나타나려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었다고…….”

해바라기 노인은 말하기가 힘이 든 듯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주지 않아도, 성공을 하지 않아도, 그저 살아  
만 있어 줬다면…….”

해바라기 노인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참 멍청한 녀석이지.”

“…….”

“녀석의 장례를 치르고 오는데, 정신이 들어보니 숲이더구나.”

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쩌면, 나를 집으로 데려다 줘야 하는 운명인지도 몰라. 안  
그래?”

치코가 과장되게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렇게 걷다가는 해가 지겠구나.”

해바라기 노인은 걸음을 빨리했습니다.

잠시 후 치코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흠흠.”

“아니, 뭐 할 말이라도 있니?”

“음. 저기 별건 아니고, 아까 내가 그랬잖아.”

치코가 뜬눈을 들이며 말했습니다.

“뭘?”

“모험을 좋아한다고.”

“그랬었지.”

“여긴 너무 무서웠어. 내가 겁이 좀 많거든.”  
“하하. 그랬구나.”  
“하지만, 이긴 절대 비밀이야. 나중에 친구들한테 말하면 안 돼.”  
“그래, 절대 말하지 않으마. 그래도 넌 대단하구나.”  
“내가 대단하다고?”  
“그래. 사실을 털어놓는 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  
“그렇구나.”  
치코가 기쁜 듯 몸을 배배 꼬았습니다.  
“그래. 그만하면 충분히 용기가 있고 대단하지.”  
해바라기 노인이 꺾꺾 웃었습니다.

한참을 걷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힘내.”  
치코가 노인의 어깨 위에서 격려를 했습니다.  
“저쪽에 광장이 있어. 거기에 다들 모여 있을 거야.”  
치코가 광장이라 말한 공터에는 뱀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사람이다!”  
“사람이 어떻게 여길 왔지?”  
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얘들아. 나야 나. 치코.”  
치코가 해바라기 노인의 어깨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치코. 대체 어디에 있었어? 걱정했잖아.”



“치코! 설마 사람에게 잡힌 거냐?”

“아냐 아냐. 저 멀리 바깥 숲에 떨어진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거야.”

“착한 사람도 있구나.”

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대체 어쩌다 거기까지 가게 된 거야?”

“우린 그것도 모르고 온 숲을 뒤지며 걱정했잖아.”

“그래. 맞아. 치치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널 찾아다녔다고.”

뱀들이 저마다 소리쳤습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 그런데 치치는 어디 있어?”

치코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오고 있는 중이야.”

“나 좀 내려 줘요.”

치코는 해바라기 노인의 팔을 따라 나뭇가지 위로 스르륵 내려 왔습니다.

“내가 말했죠? 강력한 독을 가진 친구가 있다고. 오면 소개해 줄 게요.”

“전에 말했던 치치라는 친구?”

“맞아요.”

덩치가 크고 머리가 세모난 뱀이 광장에 들어오다가 해바라기 노인을 봤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여기에?’

뱀은 치코를 향해 손을 뻗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치코, 위험해!”

머리가 세모난 뱀은 쏜살같이 달려와 노인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크헉.”

해바라기 노인이 신음을 하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안 돼!”

치코가 소리쳤습니다.

해바라기 노인이 쓰러지자 치치는 재빠르게 치코에게 왔습니다.

“치코,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무슨 짓이야! 치치, 넌 왜 항상 잘 알아보지도 않고 멋대로 행동하는 거야?”

“하지만, 사람이…….”

“내 친구란 말이야!”

치코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뭐? 난 그저 너를 잡아가려는 나쁜 사람인 줄 알고…….”

“미안해. 치치가 오해를 해서 그만…….”

치코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네 탓이 아니야. 괜찮아.”

해바라기 노인은 치치와 치코를 쓰다듬어 주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치코와 치치가 눈물을 똑똑 흘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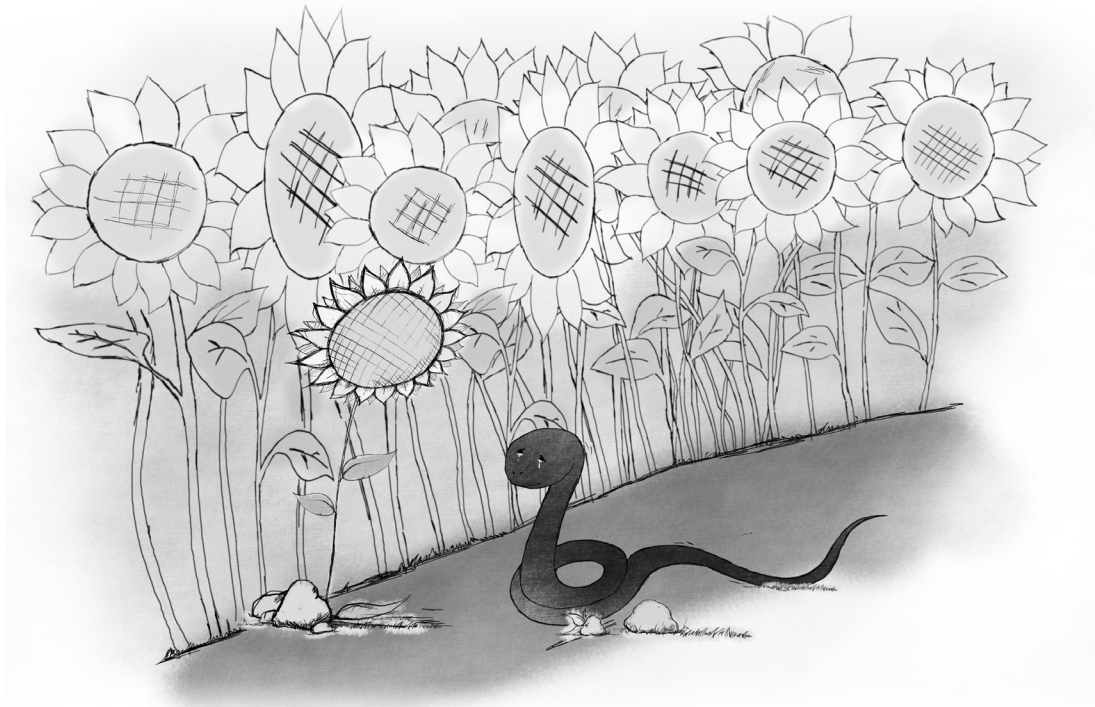
‘툭’ 하고 해바라기 노인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안 돼!”

시간이 흐른 후 그 자리에 해바라기가 한 아름 피어났습니다.

“아아, 해바라기다…….”

치코의 얼굴에서 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상상의 나라를 마음껏 펼칠 수 있고, 두고두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달과 검은 고양이를 무척 좋아합니다.

# 아라백련의 꿈

김삼선

아라네 집 마당에는 조그마한 웅덩이가 있습니다. 웅덩이 속 진흙에서는 해마다 예쁜 연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아라는 마당에 있는 수많은 어느 꽃보다도 진흙에서 피어나는 하얀 연꽃을 더 좋아했습니다.

“백련아, 이 꽃신 정말 예쁘지? 연꽃 그림 좀 봐. 아버지가 사 주신 거야.”

아라는 웅덩이 옆에 있는 우둘투둘한 검은 돌 위에 한쪽 발을 살짝 올리면서 꽃신 자랑을 합니다. 아라가 신고 있는 꽃신에는 빨간 바탕에 하얀 연꽃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종일 혼자서 일하러 간 아버지를 기다려야 하는 아라는 연꽃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백련아. 내가 꽃신이 신고 싶다고 아버지에게 몇 달을 졸랐잖아. 드디어 지난 장날에 이 꽃신을 사 오신 거야. 예쁘지?”

연꽃은 아라의 말에 대답하려고 넓은 연잎을 살짝 흔들어 보였

습니다.

“백련아 올해에도 예쁜 꽃을 피우느라 고생했어. 내년에도 만나자.”

웅덩이가 좁을 정도로 뻣뻣하게 꽃을 피운 연꽃들은 이제 가을이 되어서 잎도 꽃도 다 시들었습니다. 아라는 연밭 속에 알알이 박혀 있는 연꽃 씨를 받고 있습니다. 아라는 연꽃에게 다시 만나자는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이 되었습니다. 바람까지 심하게 불어 대는 몹시 추운 날입니다. 아라 아버지는 두툼한 옷을 입고 토끼털로 만든 귀마개를 했습니다. 아라 아버지가 산에서 성 쌓는 일을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임금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아라 아버지와 마을 아저씨들은 벌써 몇 해째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고 추운데 아버지는 괜찮을까?”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어 댁니다. 아라는 마당으로 나가 봅니다. 마당에 쌓아 놓은 김불이 황소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면서 마당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벌써 어두워지고 있잖아, 아버지가 오실 때가 지났는데.”

아라는 마음이 더욱더 조급해졌습니다.

“흑! 아버지이…….”

캄캄한 밤이 되어도 아라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기다리다 지친 아라는 옆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밤에 네가 무슨 일이니?”

옆집 아저씨가 놀란 눈으로 아라를 맞이합니다.

“아저씨! 영영,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산에서 아직…….”

아라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라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 들은 동네 어른들은 제각기 관솔불을 높이 치켜들고 길게 줄을 지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따라가겠다고 울면서 보채는 아라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달래고 있었습니다. 산에 오른 마을 어른들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아라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높은 담까지 올라가 돌을 쌓다가 미끄러져서 머리를 많이 다친 것 같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라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날씨가 어지간히 추웠어야지. 같이 내려가자니까 금방 마무리만 하고 내려온다더니.”

성을 쌓다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서둘러 마을로 내려온 다른 아저씨들이 말했습니다. 땅이 온통 퐁퐁 얼어붙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아라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고심 끝에 아라 아버지가 쌓던 성곽의 돌을 하나씩 들어냈습니다. 그런 다음 성 아래 덜 얼어 있는 땅에, 아라 아버지를 묻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아라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아라는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신 엄마가 더 보고 싶었습니다. 커다란 연잎으로 우산 놀이를 자주 해 주었던 엄마와, 어린 아라에게 목마를 태워 주었던 아버지도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아라는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부어 있는 아라의 눈에, 마당 한쪽에 군데군데 연잎이 말라 있는 얼어붙은 웅덩이가 보였습니다.

“백련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우리 엄마 아버지 있는 곳에 나도 따라가고 싶어.”

아라는 웅덩이 가에 앉아서 또다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백련아, 네가 나 대신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 줘. 우리 아버지도 내가 늘 보고 싶을 거야.”

아라는 가을에 받아 두었던 튼실한 연꽃 씨앗 열 개를 골라서 아버지가 쓰던 그릇에 담고 뚜껑을 덮은 다음 아버지 곁에 묻어 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어우 킁킁해.”

씨앗들은 아라 아버지와 오랫동안 아주아주 깊은 잠 속에 빠져 들어 갔습니다.

쿵쿵쿵쿵

“아이! 시끄러워, 이게 무슨 소리지?”

씨앗들이 잠자고 있는 땅속 깊은 곳에서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흔들리면서 커다란 소리가 났습니다. 씨앗들은 화들짝 잠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씨앗들이 들어 있는 그릇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잠자고 있던 씨앗들은 흔들리는 그릇 안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옛날 그릇이잖아.”

굴착기로 땅을 파던 공사장 아저씨들이 씨앗이 들어 있는 그릇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 눈부셔!”

씨앗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릇과 씨앗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아저씨들이 서둘러 유물 관리하는 곳



으로 연락했습니다.

“이 질그릇 문양을 보니 가야시대 때 그릇이야, 가야시대.”

고고학자들이 씨앗이 들어 있는 그릇을 놓고 빙 둘러앉았습니다.

“여기가 ‘함안’ 이니까 그때가 바로 ‘아라가야’ 시덴데 말이에요. 뚜껑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으니 정말 귀한 그릇이네요. 연대가 아마도 칠백 년은 넘었을걸요.”

“어! 여기 씨앗이 들어 있네. 조금 작기는 해도 연꽃 씨 같은데요.”

학자들이 씨앗을 꺼내면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아! 애들아 하늘이다. 파란 하늘이야.”

씨앗들은 파란 하늘을 보면서 또다시 소리쳤습니다.

“아라 아버지는 어디 가셨지? 그런데 우리가 칠백 년이나 잠을 잤단 말야?”

씨앗들은 자신들이 칠백 년이나 잠을 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다. 같이 잠들었던 아라 아버지가 보이지 않은 것이 무척 궁금했지만, 아라 아버지를 찾아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칠백 년이나 된 연꽃 씨앗이라, 과연 이 씨앗들이 살아나 있을까?”

학자들은 손바닥에 씨앗을 얹고서 자세히 살피고 있습니다. 씨앗들은 오랫동안 땅속에 있었기 때문에 강한 햇살에 눈이 부셨고

갑자기 목이 말라 오기 시작했습니다. 식물학자들이 넓은 그릇에 씨앗을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을 그릇에 부어 주었습니다.

“우와!”

씨앗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물을 듬뿍 머금은 씨앗들은 점점 몸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씨앗들은 불어난 몸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아주 조금씩 움찔거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 일째 되는 날, 씨앗들이 하나 둘, 큰 몸짓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씨앗들의 옆구리에서 연두색 싹이 세상 구경을 하려고 살짝 비집고 나왔습니다.

“와! 싹이 텃다. 싹이 텃어!”

씨앗을 애지중지 살피던 식물학자의 얼굴에 함박꽃이 피었습니다.

“정말로 싹이 나왔네요. 이럴 수가!”

동료 학자들이 서로 손을 맞추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드디어 칠백 년 만에 싹이 나왔어. 우와! 이것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기적이야! 기적!”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섯 개의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했습니다. 칠백 년 만에 어렵게 싹을 틔운 네 개의 씨앗은 당당한 네 그루의 연꽃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 네 개의 씨앗은 눈처럼 하얀 연꽃을 칠백 년 전 그때처럼 곱게 피워 냈습니다.

“애들아 여기가 옛날 아라네 집 같지 않니?”

“저 우둘투둘한 검은 돌이 그대로 있어. 저쪽을 봐. 구석에 있지?”

“맞아! 아라가 꽃신 자랑을 하던 돌이잖아.”

식물원 귀퉁이에 처박혀 있는 유난히 못생긴 그 돌을 연꽃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라가 예쁜 발을 돌 위에 올려놓고 꽃신 자랑을 했던 곳입니다.

“아라야, 아빠 일하는 곳을 다 오고, 웬일이니?”

“이 꽃이 방송에 나온 그 꽃이야? 정말 신기해.”

“신기하지. 대단한 연꽃 아니니?”

식물학자는 딸과 연꽃을 번갈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맞아, 아빠. 이 꽃을 친구들에게 자랑할 거야. 다음 주에 우리 반 친구들 데려와도 돼?”

아라는 친구들에게 시대를 거슬러 피어난 아름다운 연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딸, 되고말고.”

“백련아, 다음 주에 다시 올게. 그때는 내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올 거야.”

아라는 연꽃을 살짝 쓰다듬으면서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라는 하얀 꽃과 넓은 이파리에 예쁜 얼굴을 비빔니다. 연꽃들

이 깜짝 놀라면서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습니다. 연꽃들은 소녀를 보면서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백련아 잘 있어.”

칠백 년 만에 다시 피어난 연꽃의 새 이름은,  
아라 아버지가 지어 준 ‘아라백련’입니다.



 김삼전

월화수요일은 거제도에서 손자 셋을 돌봐 주고 목금토요일은 부산에서 동화와 소설을 공부하고 있어요. 품위와 격조 있는 글을 쓰는 멋진 작가가 되고 싶어요.

# 기억자 할머니의 과외수업

호박감자 김윤희

## 1. 받아쓰기

방그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푹 쉬면서 티덜티덜 학교로 향했어요.

어느새 학교 근처 새싹 문방구 앞이에요. 언제나처럼 기억자 할머니가 폐지 상자를 정리해서 손수레에 싣고 있었어요. ‘기억자 할머니’는 허리가 기억자처럼 굽어서 붙여진 별명이에요. 할머니는 깡마른 체격 때문에 몸을 굽힐 때면 휴대폰 폴더를 보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방그레는 온통 받아쓰기 시험 걱정하느라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지나쳤어요.

“그래, 밥 무궁나?”

등 뒤에서 언제나 같은 할머니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할머니는 한밤중에 공동묘지에서 마주쳐도 ‘밥 무궁나?’ 라고 인사할 거예요.

방그레는 받아쓰기 내내 세종대왕이 원망스러웠어요.

‘세종대왕은 왜 이리 한글을 헛갈리게 만든 거야?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틀림없어!’

방그레는 받아쓰기 점수를 받고 장대비가 쏟아질 얼굴이 되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방그레 얼굴에 천둥, 번개까지 칠 말을 했어요.

“오늘 틀린 문제 열 번씩 써 와야 하는 거 알지?”

방그레는 숙제 다 하려면 손목이 푹! 하고 부러질 것 같았어요.

## 2. 오지랴 여사

방과 후에 엄마가 도서 도우미로 있는 도서관에 갔어요. 엄마는 방그레가 온 줄도 모르고 자칭 ‘좋은 책 홍보 대사’를 하느라 바빴어요.

“이 책 엄청 재밌다. 둘이 읽다 하나 죽어도 모를걸! 한번 읽어볼래?”

‘오지랴 여사’로 통하는 엄마가 가만히 앉아 대출하는 일만 할 리가 없어요.

집으로 가는 도중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덥석 잡고 오지랴 넓게 인사했어요.

동네일이라면 열 일 다 제치고 앞장서는 엄마는 옆집 손가락

개수 까지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참, 방그레, 너 오늘 받아쓰기 시험 잘 봤니?”

엄마는 갑자기 생각난 듯 물었어요.

“엄마가 기절할 정도는 아니에요.”

방그레는 두루뭉술하게 얼버무렸어요. 엄마가 더 물어볼까 조마조마해하는데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기억자 할머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밥 무궁나?”

“할머니, 마침 잘 만났어요. 저희 집에 같이 가세요. 폐지 많이 모아 두었거든요.”

엄마도 반갑게 인사했어요.

“번번이 고맙심더.”

“오늘은 많이 모으셨어요?”

“어데예. 요새는 폐지 주울라고 다들 눈에 불을 키고 설치고 다니가 별로 못 주웠심더. 가 있으소. 요거 마저 하고 언능 따라 가겠심더.”

엄마는 헌 옷이나 신문지, 고물이 생기면 모아 두었다가 꼭 기억자 할머니에게 챙겨 드려요.

마당 한구석에 모아 둔 폐지를 대문 밖에 내놓고, 할머니를 기다리면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만 왜 꼭 기억자 할머니한테만 줘요?”

“엄마는 어렸을 때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 그때 외할머니가

금이야 옥이야 하며 참 예뻐해 주셨지. 외할머니도 허리가 많이 굽었었다. 그래서 기억자 할머니를 보면 외할머니가 생각나서 하나라도 더 챙겨 드리고 싶어. 그리고 할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폐지가 있는 곳이면 귀신같이 알고 동네 번쩍 서에 번쩍 하잖니.”

엄마 말을 듣고 보니, 방그레는 기억자 할머니가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기억자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와서 폐지를 실었어요. 능숙하게 척척 싣는 할머니와는 달리 엄마와 방그레는 어설피게 거들었어요. 엄마가 챙겨 준 폐지까지 합치니 할머니 손수레가 한 가득 찼어요.

“방그레, 네가 할머니 집까지 손수레 좀 밀어 주고 올래?”

엄마 말에 미안한 듯,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뭘 할라꼬. 괜안심더. 방그레, 야야, 고마 됐데이.”

방그레는 피아노 학원도 쉬는 날이니 저녁까진 시간이 넉넉했어요. 그리고 전부터 할머니 집이 어떨지 궁금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저 힘세요! 엄마 다녀올게요.”

방그레는 너스레를 떨며 할머니를 따라나섰어요. 그런데 몇 발 짝 못 가 숨을 헐떡거리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젓가락같이 깡마른 할머니는 어디서 저런 곰 같은 힘이 솟는 걸까?’



### 3. 기억자 할머니 집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는 좁다란 골목 입구에는 폐지 상자들이 뽁뽁이 쌓여 있어요.

“할머니, 이만 가 볼게요. 수고하세요.”

할머니는 폐지만 내려놓고 가려는 방그레를 한사코 붙잡아 방에 앉혔어요.

“쪼매마 기다리레이.”

그러고는 방 옆에 붙은 콧구멍만 한 부엌에서 바빠 손을 놀렸어요. 잠시 후 할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내 와선 한입 크기로 떼어 냈어요.

“이거 무거 봐레이.”

“이게 뭐예요?”

“쑥 털털이 모리나?”

“쑥 털털이요? 흐흐흐. 재밌는 이름이네요. 할머니도 같이 먹어요.”

방그레가 쑥 털털이를 먹으면서 대충 획 둘러보니, 할머니 방이며 부엌, 살림들이 다 할머니 나이만큼 들어 보였어요.

할머니 방 한쪽 벽은 상자들이 방그레 키 높이만큼 쌓여 있어요.

“할머니 이사 가요? 방에 상자가 왜 이리 많아요?”

“전부 주서 온 옷이데이. 이래 봐도 내가 옷 부자 아이가.”

“날마다 후줄근한 옷만 입으면서 옷 부자라니?”

방그레는 할머니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창문이 달린 벽 쪽에는 작고 낡은 텔레비전이 있어요. 그 위에 잘생긴 젊은 남자가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어요.

“저 사진 누구예요? 엄청 잘생겼다! 할머니 아들이예요?”

“내 남자친구 아이가.”

“할머니도 남자친구가 있어요? 치, 난 없는데…….”

방그레는 쭈글쭈글한 할머니도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에 배가 살짝 아팠어요.

텔레비전 옆에는 주워 온 듯한 책상에 책이 가득해요.

“책이 무지 많네요. 아하, 할머니 책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책 제목이 뉴미디어 영상미학, 대한민국 정부 기록사 등 무슨 뜻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근데 할머니는 저런 어려운 책만 읽어요? 하나도 재미없겠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주저주저하다가 물었어요.

“니는 공부 잘 하제? 학교는 재밌나?”

“…….”

방그레는 대답하기가 난처해 머리만 긁적였어요.

“나는 학교를 못 댕기따. 가난하고 어려 봐가 오빠야만 학교 보내고 내는 ‘가시나’ 라꼬 일만 했다 아이가. 그때는 가방 보따리 메고 학교 가는 오빠야가 얼마나 부러벗는지... 참, 니 이름이 ‘방그레’ 제? 참말로 이쁜 이름이데이!”

방그레는 자기 이름이 예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놀림만 당하는 자기 이름이 싫었어요. 아빠는 항상 ‘방그레’ 미소 지으며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바라며 손수 지어 주었다지만.

할머니는 한숨을 길게 푸욱 쉬더니 말을 이어 나갔어요.

“내가 가시나라꼬 아버지는 내 얼굴도 안 볼라 쟤다더라. 밤늦게 술에 잔뜩 취해가 들어와 ‘올라는?’ 하는 게 다였다카더라. 그래서 내 이름이 그냥 ‘올라’ 가 돼뻗다. 김.올.라.”

‘할머니가 올라라고?’

방그레는 피시식 새어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았어요.

“전에는 올라들이 나를 그냥 ‘꼬부랑 할머니’ 라 카더만, 요새는 ‘기억자 할머니’ 라 카데. 나는 ‘기억자 할머니’ 가 역수로 맘에 든데이. 못 배와가 까막눈이라 그랑가 ‘기억자’ 그라든 내가 마이 배운 사람이 된 거 같아가…….”

‘글자를 모르는 어른도 있다니!’

방그레는 놀란 표정을 숨기며, 남아 있던 쑥 털털이를 한입에 쑥 넣었어요.

#### 4. 기억자 할머니의 과외수업

“내가 봉사 다니다 보니, 글을 못 배운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우편물이 와도 읽을 수가 없다며 얼마나 답답해하시던지.

그래서 내가 나섰지 뭐. 방과 후 수업에 ‘어르신 한글 교실’을 열자고. 주민 센터나 복지관에서 수업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내가 반드시 ‘학교’에서 해야 한다고 딱 잘라 말했어. 그분들에게 배우는 것뿐 아니라 학교 가는 즐거움도 드려야 한다고. 나 잘했지? 네 엄마가 이 정도야!”

오지랴 엄마가 저녁상에서 침을 튀기며 말했어.

방그레는 ‘어르신 한글 교실’이란 말에 바로 기억자 할머니가 떠올랐어.

“우리 엄마 최고!”

방그레는 손가락을 쥔 채 엄마에게 엄지를 치켜들었어.

다음 날 피아노 학원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동네 ‘짜다 짜 마트’ 앞에서 상자 정리를 하고 있는 기억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그래, 밥 무궁나?”

“할머니, 할 거죠?”

“.....”

방그레는 멀뚱멀뚱 쳐다보는 할머니를 보고서야 아차! 싶었어요.

“한글 교실 말이에요! 엄마가 그러는데 2학기부터 ‘방과 후 어르신 한글 교실’이 열린대요. 이제 할머니도 한글도 배우고 학교도 다닐 수 있어요!”

“글라…….”

펄쩍 뛰며 좋아할 줄 알았던 할머니는 말없이 상자만 매만졌어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어렵사리 말을 꺼냈어요.

“니, 내한테 먼저 한글 쯤매 갈카 주면 안 되나? 니도 학교 들어  
가기 전에 한글 쯤매 알고 갔제? 내도 그랬으면 싶은데…….”

‘받아쓰기도 엉망으로 본 내가 한글을 가르쳐? 안 되지, 안 돼!’  
방그레는 머리를 도리도리 흔들고는 물었어요.

“할머니는 한글 배우면 제일 먼저 쓰고 싶은 게 뭐예요?”

“박정배.”

“박정배요?”

“울 영감 이름…….”

“아! 사진 속의 그 잘생긴 남친!”

“그라고 ‘짜다 싸 마트’.”

“마트는 또 왜요?”

“거가 내한테 상자를 제일 마이 준다 아이가. 그라고 또, 중국집  
가가 메뉴판서 ‘짜장면’ 글자를 콕 짚어 ‘이거 주이소’ 해 보는 게  
내 소원이데이.”

“그 정도 글자 가르치는 건 식은 죽 먹기죠! 그럼 제가 할머니  
한글 과외 선생님이 되는 거네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거  
알죠?”

방그레는 할머니에게 왼쪽 눈을 찡긋거리며 말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방그레 선생님!”

환하게 웃으며 꾸벅 인사하는 할머니가 유치원생처럼 귀엽게 보였어요.

‘쇠뿔도 단김에 빼렸다.’

방그레는 집에서 달력, 매직펜 등을 챙겨서 할머니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갔어요.

“덱제? 이거 무그라.”

할머니가 얼음 동동 띄운 미숫가루를 타 왔어요.

방그레는 별걱별걱 들이켜고는, 달력 뒷면에 ‘ㄱ’ 부터 ‘ㅎ’ 까지 한글 자음을 또박또박 써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완성된 글자판을 할머니 눈높이에 맞춰 벽에 딱 붙였어요.

“흠흠, 자 따라 해 보세요. 기억, 니은, 디근…….”

방그레는 목청을 가다듬고, 집게손가락으로 한 자씩 짚어 가며 수업을 시작했어요.

“기억, 니은, 디근…….”

할머니는 글자판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목청껏 따라 했어요.

“우선은 아침에 일어나서 열 번, 자기 전에 열 번씩 날마다 읽어 보세요.”

“열 번이 뭐꼬? 스무 번 아니 백 번이라도 읽을 기다.”

할머니는 콧김까지 뿜어 가며 힘차게 말했어요.

방그레는 내친김에 할아버지 사진 밑에 ‘박정배’ 를 시작으로 텔레비전, 책상 등 순서대로 이름표를 써서 붙였어요.

“박정배, 텔레비전, 책상,…….”



할머니는 방그레 꿈무늬를 따라다니며, 신이 나서 따라 읽었어요.

할머니와 방그레는 날마다 만나 수업을 했어요.

할머니가 폐지 주우러 다니는 마트, 문방구, 골목골목이 다 둘만의 교실이에요.

할머니는 폐지 줍는 것만큼이나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자, 이제 받아쓰기 시험 봐요.”

“어제 봐 놓구, 또 시험이가? 맨날 시험 보자 카면 어짜노?”

할머니는 툭툭거리면서 전단지로 만든 공책을 찢어요.

“자, 1번은 비읍, 2번은 키읍, 3번은…….”

방그레는 그런 할머니를 딱 무시하고, 새침하게 시험을 진행했어요.

“까마구 고기를 무엇나? 돌아서면 까묵고, 돌아서면 까묵고. 와 이리 생각이 안 나노?”

시험 점수를 받아 든 할머니는 얼굴을 잔뜩 찌푸렸어요.

“아, 몰라, 몰라! 이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줘도 아직도 모르면 어떡해요! 오늘 틀린 문제 열 번씩 써 와야 하는 거 알죠?”

방그레는 발을 동동 구르며 할머니를 흘겨보았어요. 아무래도 할머니는 까마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았어요.

## 5. 1학년 1반 어르신 한글 교실

어느덧 2학기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던 ‘방과 후 어르신 한글 교실’ 첫 수업 날이에요.

종례가 끝나자 방그레는 한달음에 1학년 1반 교실로 달려갔어요. 교실 문에는 ‘방과 후 어르신 한글 교실’이란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자원 봉사 엄마들의 안내를 받아 ‘어르신 학생’들이 속속 교실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벌써 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



요. 잔잔한 꽃무늬 블라우스에 긴 회색 치마를 곱게 차려 입고서. 할머니는 긴장되는지 자꾸만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책상 위에는 방그레 글씨체로 ‘김을라’ 이름이 새겨진 새 연필과 새 필통, 새 공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방그레가 이틀 전에 저금통을 탈탈 털어 산 ‘할머니 입학 축하 선물’ 이에요.

수업 종이 올리자, 방그레는 속으로 ‘할머니, 아자!’를 외쳤어요.

방그레는 창문에 바싹 붙어, 가슴 졸이며 할머니를 지켜봤어요. 어르신들이 ‘기억, 니은…….’ 하며 따라 읽을 때마다, 할머니 목소리가 제일 컸어요. 방그레는 눈을 초롱초롱 뜨고 수업 받는 할머니가 정말 예뻐 보였어요.

마침내 수업이 끝났어요.

“할머니, 수업은 재밌었어요? 선생님은 어때요? 할머니가 제일 열심히 하던데요.”

“아이고, 야야. 니 안 가고 여태 있었나? 밥은 무긋나?”

할머니는 목이 쉬어 목소리가 걸걸했어요.

“할머니,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요. 제가 한턱낼게요!”

“니가 무신 돈이 있다꼬?”

“할머니가 준 과외비 있잖아요!”

방그레는 세종대왕이 방그레 웃고 있는 지폐 한 장을 팔랑팔랑 흔들며 보였어요.



호박감자 **김윤희**

동화랑 친한 친구 사이가 되고 싶습니다.  
요즘은 동화랑 같이 울고, 웃고, 상상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 라면 먹을까?

김종숙

“아빠, 일어나!”

아빠가 자고 있다. 아빠는 오늘도 사각팬티만 입었다. 나도 이제 3학년인데, 반바지라도 입었으면 좋겠다. 아빠는 몸짱도 아니다. 또 손님이 있어도 상관 안 한다. 이럴 땐 내 아빠지만 보기 창피하다. 아빠는 주야 2교대 하는 회사에 다닌다. 이번 주는 야간 근무다. 저녁밥을 일찍 먹고 출근한다. 다른 아빠들 퇴근하는 시간에 아빠는 집을 나간다.

“어, 딸 벌써 왔어!”

아빠는 부스스한 얼굴에 턱수염이 촘촘하다. 스윽 돌아누우며 대답만 하고 다시 눈을 감는다.

“다섯 시야, 아빠! 저녁밥 먹어야지.”

나는 밥솥을 열었다. 한 사람이 먹을 양뿐이다. 쌀통 옆 서랍을 열었다. 텅 비었다. 라면이 떨어지고 없다. 나는 자는 아빠의 귀를 잡아 당긴다.

“아빠, 된 라면 사야 돼.”

아빠는 씩 웃으며 일어나 두 팔로 나를 잡아 껴안는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바지를 발로 잡아당겨 지갑을 꺼낸다. 나는 얼른 지갑 속에 눈길을 둔다. 과자 한 봉지, 아님 초콜릿이라도 한 개 사 먹고 싶다. 만 원은 보이지 않고 천 원짜리 몇 장만 보인다.

“삼천 원 하면 되지?”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라면 두 봉지 사고 남은 돈이 얼마일지 암산을 한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빠 목소리가 들린다.

“잔돈 가져 온나.”



이럴 땐 아빠도 치사하다. 이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 하나 못 사 먹는다. 내가 참는다.

아빠가 짠돌이가 된 건 이유가 있다.

엄마가 라면을 끓여 왔다. 내가 좋아하는 참치도 들어 있다.

“와, 대박! 참치까지.”

“웬 호들갑. 조용히 앉아 먹거나 해.”

아빠는 텔레비전을 보며 밥상 앞에 앉았다.

“사장 잡았어요?”

“중국으로 도망갔다.”

갑자기 엄마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난 움찔했다. 라면이 뜨겁지 않았다. 그냥 삼켜 버린다. 순간 고요가 흐른다.

“내가 회사 옮기라고 했을 때 말 좀 듣지?”

“시끄럽다!”

아빠는 엄마를 보지도 않고 텔레비전 야구 중계에 눈을 두었다.

“야구가 밥 먹여 주나.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주제에...”

엄마의 짜증 섞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가 상을 뒤엎었다.

라면이 방안에 쏟아졌다. 발바닥이 뜨겁다.

아무도 날 챙기지 않았다.

아빠는 휴대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엄마는 치울 생각도 않고 벽에 기대앉았다.

나는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 부모님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

다. 두렵다. 심장 뛰는 소리가 폭포수같이 들린다.

아빠의 가출은 여러 달 계속되었다. 아빠의 빈자리를 엄마가 대신한다. 무책임한 아빠다.

엄마의 고난 행군이 시작된다. 오전에는 즉석 김밥, 오후엔 24시 해장국 식당으로 옮겨 다닌다. 밤 열 시가 되어야 집에 오는 엄마는 날마다 파김치가 된다. 손발이 퉁퉁 붓는다.

엄마는 몸이 연약해서 바람에 날아갈 것 같다. 손마디가 자꾸 굽어진다. 나는 핸드로션을 찾아서 발라 준다. 그때 엄마가 참 환하게 웃는다. 엄마가 좋아하는 동요를 불러 주면, 엄마는 나를 꼭 껴안아 준다. 숨쉬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좋다.

**우리 엄마 언제나 일만 하는 엄마데**

**오늘 보니 참 예뻐요**

**콧잔등에 잔주름 그도 예뻐요**

나는 엄마가 식당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끼니를 때운다. 음식 메뉴가 거의 비슷하다.

엄마는 집에 오면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조차 없다고 늘 말한다. 큰방에 누워서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기만 한다.

우리 집 싱크대엔 물기는 없지만 먼지는 보인다. 엄마는 부엌일에 손을 놓았다.

“전화 온 거 없니?”

엄마는 아빠의 소식을 기다린다. 물론 나도 처음에는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뛰었다.

혹시나 아빠면 뭐라고 말하지? 하지만 이젠 무심한 아빠가 밉다. 엄마가 힘들어 보일 때면 더 그렇다.

현관에는 아빠가 신었던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다. 엄마는 아빠가 안 계신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가 보다. 나도 친구들한테 주말에 아빠랑 놀았다고 꾸며 말하기도 한다.

아빠가 집을 나간 뒤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팍 줄었다. 엄마가 일을 하면서 더 그렇다.

빈집처럼 조용하다.

씻고 나온 엄마 얼굴에 광대뼈가 두드러져 보인다. 눈가의 주름살은 더 깊어졌다. 엄마는 수건을 베개 삼아 자리에 누웠다. 나도 엄마 옆에 엎드렸다.

“엄마, 내가 의사 되어서 주름살 제거 수술해 줄게.”

“약속이다. 꼭 해주기.”

“헤헤.”

툑 툑 툑.

“무슨 소리 안 들렸어?”

“아니, 못 들었는데.”

난 엄마에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툑 툑 툑.

엄마는 순식간에 일어나 문을 열었다. 엄마의 빠른 동작이 놀라웠다.

아빠가 현관에 들어섰다. 나는 멧쩍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빠가 뭐다는 생각도 했는데 막상 아빠를 보니 내 입 꼬리는 자꾸 올라간다.

아빠는 라면을 사 들고 나타났다.

“연서야! 라면 끓여 먹을까?”

그리고 아빠는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갔다.

아빠는 이제 막 퇴근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태연한 아빠를 보니 이상하다.

엄마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침묵 게임을 하는 것 같다.

엄마는 라면을 끓여 주고는 부엌으로 갔다.

나는 아빠 옆에 앉았다. 뱃살은 쑥 들어가고 얼굴은 늙어 보였다. 흰 머리카락이 무더기로 보인다.

“학교 잘 다니니?”

“응, 아빤 어디 있었어?”

“그냥, 여기저기. 엄마 좀 오라고 해.”

아빠는 라면을 국물 하나 없이 말끔히 비웠다.

아빠는 밥상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그 모습이 안쓰럽게 보인다. 아빠는 두 손을 포개 허벅지 사이에 넣었다.

나는 엄마와 함께 문 앞에 앉았다. 나는 엄마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 참 좋았다.

아빠는 아무 말이 없다. 엄마가 아빠 입만 본다.

“으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소.”

아빠의 낮은 목소리는 목이 잠기는 듯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연서야, 아빠를 용서해라.”

어른이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어른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빠가 지금 변한 것 같다.

엄마는 두 무릎을 세우고 앉았다. 엄마는 여전히 말이 없다. 엄마는 라면 먹었던 밥상을 들고 일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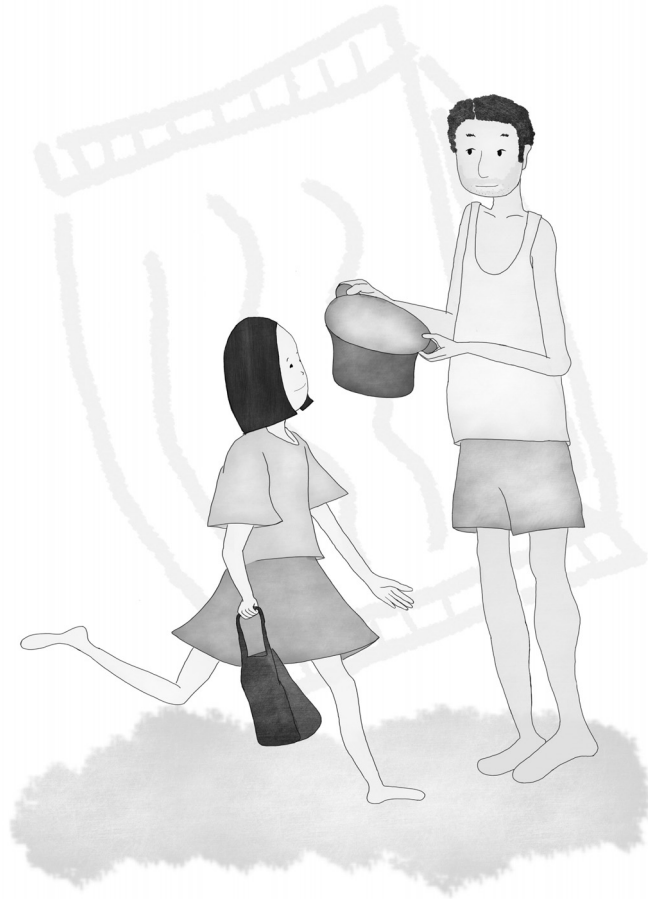
아빠는 나를 껴안고 따라 일어선다. 엉거주춤한 상태로 나는 아빠 품에서 빠져나왔다.

엄마는 장롱에서 이불을 꺼냈다. 엄마는 매일 그 이불을 깔던 것처럼 했다. 이불 위 엄마 베개 옆에 아빠 베개가 나란히 놓였다.

아빠는 며칠 만에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그 힘들다는 주야 일을 시작한 것이다.

물론 통근 버스가 다니는 회사여서 차비가 들지 않는다. 돈 쓸 일이 준 것이다.

아빠의 변신은 엄마를 기쁘게 했다. 아빠는 술도 입에 대지 않는다.  
도대체 1년 동안 아빠는 어디를 갔다 왔을까?  
내가 물으면, 아빠는 “묻지 마, 다쳐!” 하고 웃어넘긴다.  
라면을 사 왔다. 아빠는 쌀을 씻어 압력 밥솥에 넣는다.  
사각팬티 차림으로 부엌에 있는 아빠 모습이 참 그렇다.



재송어린이도서관 어린이 책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유치원생 딸과 함께 도서관 나들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 역시 우리 동네 친구들

김한나

## 골목대장 고양이 시도를 이기는 쉬운 방법

“엄마한테 개구리 반찬 해 달라고 해야지.”

이제 이 모퉁이만 지나면 엄마가 기다리는 우리 집이다.

“엄마 나는 개구리 반찬!”

난 힘차게 달렸다.

바로 그때였다.

“야옹”

시도가 나타났다. 시도는 이 동네 골목대장 고양이인데 울음 소리가 호랑이만 하다.

“야옹”

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귀여운 강아지이다.

“야옹”

시도는 더 크게 소리친다. 시도의 목에는 나비넥타이같이 생긴 점이 있다. 시도가 소리칠 때마다 나비넥타이가 점점 위로 올라간다. 나는 지금 집에 가야 하는데……. 엄마는 벌써 개구리 반찬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야옹”

나는 움직일 수가 없다. 내가 움직이면 시도는 다리를 물 거다. 시도가 어제 이웃 동네 강아지 다리를 물었다는 소식을 짝지한테 들었다. 식은땀이 났다.

“야옹”

추운 겨울이라서 그런지 땀이 그만 고드름으로 변했다.

“야옹”

시도의 눈치를 살피다 보니 내 눈이 아프다. 저기가 우리 집인가?

“야옹”

지금쯤이라면 앞집 차임이 할머니가 노인정에서 돌아올 시간인데. 오늘은 너무 늦네.

“야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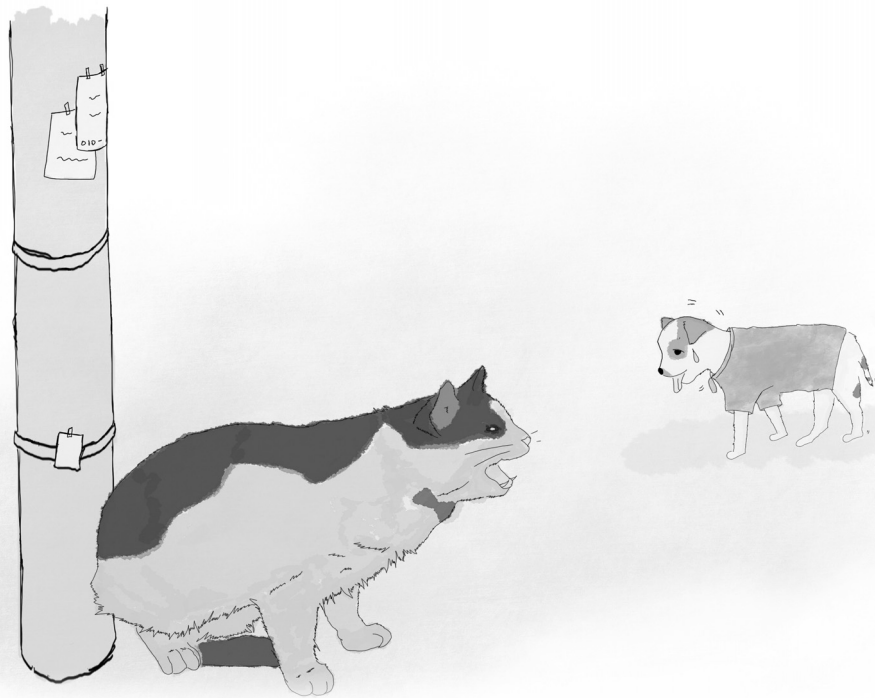
‘멍멍’이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소리가 사라져 버린다.

“야옹”

지금은 몇 시일까?

“야옹”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 아까 물 마시지 말걸. 참을 수 있을까?



## “야옹”

시도는 더 크게 소리친다. 이러다가 시도의 나비넥타이가 하늘로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겠다. 시도도 꼼짝하지 않고 나를 보고 있다. 화장실에 어서 가야겠다. 급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움직일 수 없던 내 다리가 저절로 움직인다. 이때대!

‘쿵. 쿵. 쿵. 쿵’

나는 시도를 향해 돌진했다. 그렇지 않으면 시도 앞에서 오줌을 싸지도 모른다. 나는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 앞에서 오줌을 싸 수는 없지. 내 체면이 있지.

“멍멍 멍멍 멍멍”

내 목소리가 나왔다.

시도도 놀랐다. 내 등 뒤로 들리는 시도의 목소리는 최고로 컸다. 나는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달렸다. 엄마를 보자마자 나는 웃었다.

“엄마, 내가 고양이 시도를 이겼어. 내가 이겼어. 그래서 시도 지금 화 많이 났을 거야.”

“그것보다 너 바지에 또 오줌 싸 거야!”

바지에 오줌 싸 게 서른세 번째라서 나는 혼이 좀 났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다.

‘시도야, 다음에는 정정당당하게 이길 거야. 두고 봐라.’  
바지와 팬티를 갈아입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 대답을 기다릴게

나는 이 동네 골목대장 고양이 시도다. 나만 보면 누구든지  
벌벌 떠다. 이 동네 사람들도 나를 보고 떠다. 내 목소리가 호랑이  
목소리랑 같단다. 하지만 나는 호랑이를 본 적도 없다.

“룰루랄라 라랄루룰”

오늘처럼 기분 좋은 날도 드물 것이다.

어제 이사 온 집에 빨간 고양이도 이사 왔다.  
반했다.

나도 좀 멋진 고양이인데 그렇게 예쁜 고양이는 처음 보았다.  
말을 걸어 보려고 했는데 바쁜 것 같아서 포기했다. 내일이 있는데 뭐.

오늘이 그날이다. 빨간 고양이는 집을 다 정리했겠지.  
이름이 뭘까?

그녀의 집 앞이다. 우선 외쳐 보았다.

“야옹”

아무 대답이 없다.

“야옹”

이번에는 좀 더 크게 불러 볼까?

“야옹”

이것보다 더 크게?

“야옹”

내 목소리는 호랑이 목소리라고 하는데 말이야. 너무 무섭게 들리려나?

“야옹”

그래도 크게 불러야 내 목소리가 들리겠지?

“야옹”

온몸에 힘을 주었다.

“야옹”



새로 이사 온 고양이, 이래도 안 나올 거야?

“야옹”

내가 이 동네 대장이라고! 사람들도 다 나를 무서워해. 그런 나라고. 그런 나란 말이야.

“야옹”

내 목소리가 멋지지 않니?

“야옹”

제발 좀 나와. 이러다가 동네 고양이들이 다 구경하러 오겠다. 한 번만 더 부르고 그만 할게. 정말 마지막이야.

“야옹”

‘쿵. 쿵. 쿵. 쿵’

“멍멍 멍멍 멍멍”

누구야? 저 바보 순리가 감히 이 시도한테 도전장을 내민 거냐! 어? 지금?

순리는 내 앞을 그냥 빠르게 지나간다.

푹!

순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내가 놀라기는 했다.

“아옹”

빨간 고양이는 끝까지 대답이 없다. 집에 없나? 이름이라도  
알고 싶은데. 이 동네 산책하면서 고양이풀이 가득한 나의 아지트  
를 빨리 소개해 주고 싶다.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 또 와 보지.

순리야,  
내일도 나를 보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라. 아옹.



# 낙서

박민애

윤주와 싸웠다  
미운 마음에 낙서를 했다  
'밉다. 진짜 밉다.'고

다음 날  
윤주가 아무렇지도 않게 웃어 주었다

지난밤 내 마음 속 미운 낙서를  
살짝 지워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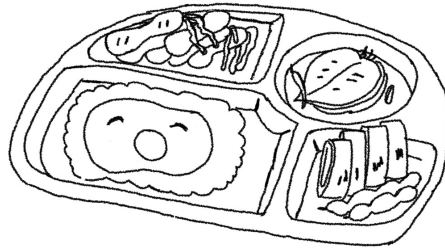
# 웃음반찬

도서관 구내식당 아줌마들의  
늦은 점심시간

호호호  
하하하  
까르르 깔깔깔

식탁 위에 늘어놓은  
웃음 반찬들

반찬이 좋아서  
밥맛도 더 있겠다



# 비

비야,  
너는 우산도 없니?

우산 지붕 위에서  
우산 꼭대기에서  
미끄럼만 타고 놀기만 하는구나

비 맞고 노는 모습  
가여워서

엄마가 곧  
우산 갖고 올 거야



아들한테 '엄마는 요정' 이라고 우기면서까지 동화와 동시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작가 이준마입니다. '모시울'이라는 모임에서도 글을 쓰고 있  
습니다. 독서지도사이고 NE선생님이기도 합니다.

# 화성인의 초대

박이랑

집으로 오는 길.

우편함에 파란 봉투가 있었다. 엄마한테 온 거였다.

**‘화성인’**

뜯어보고 싶지만 참았다. 머릿속을 맴도는 엄마 잔소리 때문이다.

엄마는 오늘도 새빨간 입술로 나를 반겼다.

그런데, 갑자기 봉투를 뒹 낚아채는 엄마!

뭘 일? 내 속에서 갑자기 탐정의 본능이 꿈틀거렸다.

아무래도 엄마가 이상했다.

지난번에도 엄마는 이상했다. 숙제를 끝내고 간식을 먹고 있었다.

“하하, 호호, 어머, 그러니?”

거실에서 간지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엄마가 아닌 줄 알았다. 수화기를 든 엄마 얼굴이 빨갰다.

“응, 응.”

고분고분 듣고 있다가 거북한 목소리로 추임새를 넣고 있는

분이 엄마라니!

푹! 먹고 있던 떡이 튀어나왔다.

‘씻어라, 숙제해라, 준비물 챙겨라…….’

나에게 ‘라라라라’ 딱따구리 대화법을 쓰는 엄마. 그런 엄마를  
여름날 아이스크림 녹듯 흐물흐물 녹이는 인물이라니, 대체 누굴까?

“응. 주소는…… 그럼 그때 봐.”

전화를 다소곳이 끊고 엄마가 돌아섰다.

“남자 목소리 같은데?”

궁금해서 참을 수 없었다. 엄마도 참을 수 없다는 듯 외쳤다.

“치워라! 이게 뭐야!”

나는 바닥에 떨어진 떡가루를 살살 긁어모았다. 눈을 흘기는  
딱따구리가 무서웠다. 아니, 이상했다.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저녁을 먹은 뒤, 아빠한테 말했다. 회사 일을 가져온 아빠는  
컴퓨터만 보고 있었다.

“화장도 진하고, 안 하던 운동도 하고…….”

아빠는 딱 한마디만 했다.

“시인이라 그래! 시인은 봄이 되면 꿈을 꾸거든.”

“…….”

때로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내가 지금 그렇다.  
방문을 달고 나왔다.

‘아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요!’  
물론 속으로 삼킨 말이다.

엄마는 자칭 시인이다.

빨간 수첩, 파란 수첩, 수첩도 많다. 수첩마다 빼곡히 시를 적는  
엄마가 멋있다고 생각한 적은 가끔 있다. 시인이라서, 봄이어서?  
봄이니까, 봄은 여자의 계절이라니까 이해는 한다. 그렇지만, 그  
편지는 뭘까?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궁금한 걸 못 참는 건 세상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다. 난 세상  
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 우리 집의 평화를 위해서 그 편지의 정체  
를 알아야 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친 엄마가 운동하러 나가자고 했다. 운동?  
엄마는 운동을 안 한다. 숨쉬기 운동이나 스트레칭 정도면 모를까.  
나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

“벚꽃이 밤에 얼마나 예쁜지 아니?”

“숙제가 많아요!”

“도대체 이 집엔 나랑 놀 사람이 없네.”

투덜대던 엄마가 밖으로 나갔다.

기회는 얼른 잡아야 한다! ‘문제’의 그 봉투를 찾았다. 화장대,  
서랍장, 책꽂이, 가방…… 있을 만한 데는 다 뒤졌지만 없다.

나는 찾는 건 도사 수준이다. 책 속에 끼워 둔 명함이나 쪽지를  
찾는 건 보물찾기만큼 재밌다. 엄마도 보물찾기를 잘했다고 한다.



바위 밑이나 풀숲에 숨은 작은 종이를 찾는 보물찾기라면 나도 잘하는데…….

아빠가 보기 전에 편지를 찾아야 하는데 답답했다. 탐정이 이러쿵 저러쿵 핑계를 대는 건 그렇지만, 시간이 모자랐다. 아빠가 엄마를 찾아서, 아니 과일을 찾아서 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아빠와 나는 딸기 한 접시를 사이에 두고 텔레비전을 보았다. 딸기를 깨끗이 비우고 나자 엄마가 빨간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엄마는 벚꽃을 보는지 운동을 하는지 밤마다 밖으로 나갔고, 빨간 얼굴로 돌아왔다.

사람이 바라고 바라면 안 되는 일이 없나 보다.

드디어 편지를 찾았다! 걸봉이지만 그게 어딘가! 단서가 중요하다.

### ‘화성인’

달랑 세 글자. 우리 집 주소도 맞고 엄마 이름 ‘박이랑’도 맞는데, 보내는 사람은 화성인이다. 화성인이라니 엄마가 외계랑 통신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아빠는 또, ‘엄마는 가능할지도 몰라! 시인이거든.’ 할지 모른다. 내용물은 없었다. 엄마가 증거를 인멸한 게 틀림없다. 봉투에는 ‘경주’ 소인이 찍혀 있었다.

‘경주에 사는 화성인.’

‘대화명일까?’

‘전화를 한 그 남자일까? 그렇다면!’



이쯤 되면 탐정은 딱딱한 호두를 반은 쪼갠 것이다.

“일요일에 동창회가 있어요. 나도 한번 가고 싶은데…….”

아침밥을 먹다 말고 엄마가 말했다.

“이번에는 총동창회라 행사도 크게 하고, 어머니 댁에도 들르고…….”

엄마 목소리가 들떠 있다.

“그럼, 지구도 데려가지그래.”

아빠가 말했다.

“지구, 너 바쁘지 않아?”

엄마 목소리가 시큰둥하게 들렸다.

“별로 안 바쁜데.”

사실 그날 친구와 약속이 있지만, 뒤로 미루면 된다. 가정의 평화 보다 더 급한 건 없으니까.

“어릴 적 고향 친구라, 많이 변했겠지?”

아빠가 냉잇국을 그릇째 들고 후루룩 마시며 말했다.

아빠, 지금 드시는 푸르죽죽한 냉이처럼 퍼진 아저씨들만 올 리  
가 있겠어요?

배불뚝이 대머리 아저씨만 올 리가 있겠어요? 나는 입이 근질  
거렸지만, 참았다.

나는 지금 엄마 동창회가 열리는 학교 운동장에 서 있다.

남쪽 감나무 위에도 빨강고 파란 만국기 꽃이 알록달록 피었다.

“많이 변했네! 여긴 건물이 없었는데?”

엄마는 아이처럼 즐거워 보였다.

햇볕도 따스하고 딱 놀기 좋은데, 지금 나는 근무 중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곳에 ‘화성인’ 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운동장 둘레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엄마 뒤를 따라

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엄마를 놓친 것이다.

‘어디로 갔지?’

남쪽 감나무 옆 놀이터에는 어린아이들과 젊은 아빠들이 보였고, 서쪽으로는 소나무 숲이 보였다. 숲 가까이 오자 운동장이 제법 멀어졌다. 솔숲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현수막을 들고 오는 사람, 책상을 나르는 사람들로 바빠 보였다. 숲에도 행사를 준비하는 것 같았다.

숲에는 엄마가 보이지 않았다. ‘화성인’도 보이지 않았다. 내 짐작 대로라면 좀 특이한 분이어야 하는데, 보이는 사람들은 그저 평범해 보이는 아저씨들뿐이었다.

여기저기 웅성거리는 사람들은 남자가 대부분이었다. 모두 인사하느라 바빴다.

운동장으로 걸어 나왔다. 엄마가 저만치 무리 속에 있었다. 엄마는 춤추는 아이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런데 누가 부르는지 엄마가 고개를 돌렸다. 머리숱이 별로 없고 얼굴이 거무튀튀한 아저씨였다. 나는 헉헉대며 엄마를 향해 뛰었다.

“맞네. 딱따구리, 박이랑.”

엄마는 반가운 얼굴로 아저씨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지구야, 인사드려라. 엄마 초등학교 친구란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지구? 흠. 좋은 이름이네. 화성인 못지않네.”

아저씨는 분명 그리 말했다. 화성인이라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다.

엄마는 아저씨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안부 인사가 생각보다 길었다. 아저씨는 눈을 반짝이며 내 머리를 몇 번 쓰다듬어 주었다. 머쓱해진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곧이어 보물찾기가 시작됩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서쪽 숲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안내 방송이 끝나자 단상 위에선 막춤 경연이 계속되었다. 함께 온 아이들이 신 나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었다.

“잘한다!”

여기저기서 함성과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엄마를 힐끗거리며 손뼉을 열심히 쳤다. 손바닥이 얼얼했다.

어느새 인사가 끝났는지 엄마가 춤추는 아이들을 보며 웃고 있다. 엄마 옆에는 갈색 선글라스를 낀 아주머니가 있었다. 나는 아주머니에게 다가갔다.

“저, 혹시 화성인…….”

목소리가 약간 떨려서 내 목소리에 내가 놀랄 지경이다.

“화성인?”

아주머니가 되물었지만 선글라스 속 눈빛을 읽을 수는 없었다. 고급 정보를 줄 것 같았는데, 괜히 물었나 싶었다.

“저쪽 숲에 특별한 보물이 있다. 찾으러 가자!”

그때, 굼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와 인사하던 그 아저씨였다.

목소리가 대장처럼 씩씩했다. 아저씨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더니 소나무 숲을 향해 걸어갔다.

특별한 보물?

화성인은 어찌지?

뭐, 엄마만 잘 감시하면 되니까.

나는 얼른 아저씨를 뒤따랐다.

엄마는 선글라스 아주머니와 재미난 얘기라도 하는지 깔깔거리며 뒤에서 오고 있었다. 때마침 막춤 경연도 끝났는지 많은 사람들이 숲으로 모여들었다.

#### 49회 동창회 우리들의 보물찾기

엄마의 챙이 넓은 빨간 모자는 어디서나 눈에 띈다. 우거진 소나무 숲에서는 더 그랬다. 빨간 줄무늬 하얀 운동복을 입은 엄마는 지금 숲에 있다.

그런데, 엄마가 웬 남자와 마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화성인?’

감색 운동복에 파란 모자를 썼고 희끗희끗한 흰 머리가 멋있어 보이는 분이였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엄마가 저렇게 잘 생긴 ‘화성인’ 과 웃고 떠들다니 역시 아빠가 안 오길 잘했다. 후우, 한숨이 나왔다. 엄마는 내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즐거워 보였다. 나는 기분이 나빠졌

다. 그냥, 엄마 등을 한 번 툭 쳤다. 엄마는 ‘왜?’ 하는 입 모양으로 말하더니 그걸로 끝이었다.

다시 그분과 하하호호 대화 중이다.

그때, 누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숲으로 가자며 대장처럼 말한 아까 그 아저씨다. 대장 아저씨가 찡긋 눈짓을 했다.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보물은 모두 열두 갓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물찾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모여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흩어졌다.

조금 뒤 바위 옆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교실 청소 도구!”

보물을 찾았나 보다. 저쪽에서 또 누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함성과 함께 손뼉을 쳐 주었다. 누가 ‘보물’을 찾으면 종이에 적힌 대로 외쳤고, 누가 손을 흔들며 자기 이름을 외쳤다. 이름을 외친 사람이 그 보물을 학교에 기증하는 것 같았다.

“공책 100권!”

보물찾기가 생각보다 쉬운지 여기저기서 ‘보물’을 찾았고, 기증자의 이름이 소개되었다.

“재미있지?”

대장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지만 난 별로였다. 시시하게 공책이라니…….

나는 엄마가 뭘 기증했을까 궁금하였다.

“동시집 기증!”

누군가 외쳤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안 봐도 엄마다. 엄마가 손을 흔들며 이름을 외쳤다.

“여기, 또 내 보물, 이지구!”

엄마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나도 쑥스러웠다. 내 이름까지 말할 게 뭐람!

나는 손으로 얼굴을 비비며 잠시 땅만 보고 있었다. 그래도 기분은 우쭐했다. 꼭 내가 큰일을 한 것 같았다.

나도 이제 보물을 찾고 싶었다. 작지만 반듯한 네모 모양의 하얀 종이.

마른 솔잎 사이에 덮여 있는, 저것은?

내 눈에도 보였다! 분명 보물이었다. 얼른 팔을 뻗었다.

‘찾았다!’

기분이 좋아 입을 벌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대장 아저씨가 어서 발표하라는 듯 내 팔을 툭툭 쳤다.

“정원수 세 그루!”

나는 크게 외쳤다. 그리고 곧이어 들리는 소리.

“화성인!”

이럴 수가! 나는 놀라 주저앉을 뻔했다. 내 옆에 있던 바로 그 아저씨 였다. 엄마와 인사하던 아저씨, 대장처럼 숲으로 이끌던 그 아저씨가 화성인이었다!

와야! 아저씨도 두세 차례 합성을 받았다.

“아저씨 이름이 화성인이에요?”



나는 따지듯이 물었다. 아까부터 아무나 붙잡고 묻고 싶었던 말이었다.

“응, 그렇지.”

진짜 화성인이 싱긋 웃었다. 동글동글한 눈이 장난스럽게 반짝이며 웃고 있었다.

“화씨도 있어요?”

이번에는 엄마에게 물었다.

“그럼.”

엄마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내 귀에 소곤거렸다.

“그보다 저 둘이 같은 집에 산다는 게 더 놀라워.”

엄마가 말한 ‘저 둘’은 선글라스 아주머니와 화성인 아저씨였다.

“같은 집?”

내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응. 둘이 결혼했대!”

무슨 놀라운 비밀처럼 엄마가 또 소곤거렸다.

“화성인, 저 친구가 이번 보물찾기를 기획한 동창회장이야. 학교 다닐 때 엄청 장난꾸러기였지!”

엄마 말에 아저씨는 싱긋 웃기만 했다.

“선생님 애를 얼마나 태웠는지 몰라. 이 숲에서 많이 놀았지. 나무 위에서 장난치다가 다리 부러지고, 애들 꿀탕 먹이고, 나무 타고 놀더니 정원사가 됐네. 정원수도 기증하고, 이번에 플꽃 전시회도 한대.”

엄마가 장난꾸러기 화성인을 떠올리며 딱따구리처럼 깔깔거렸다. 나도 덩달아 즐거운 기분이 들었다. 웃음까지 실실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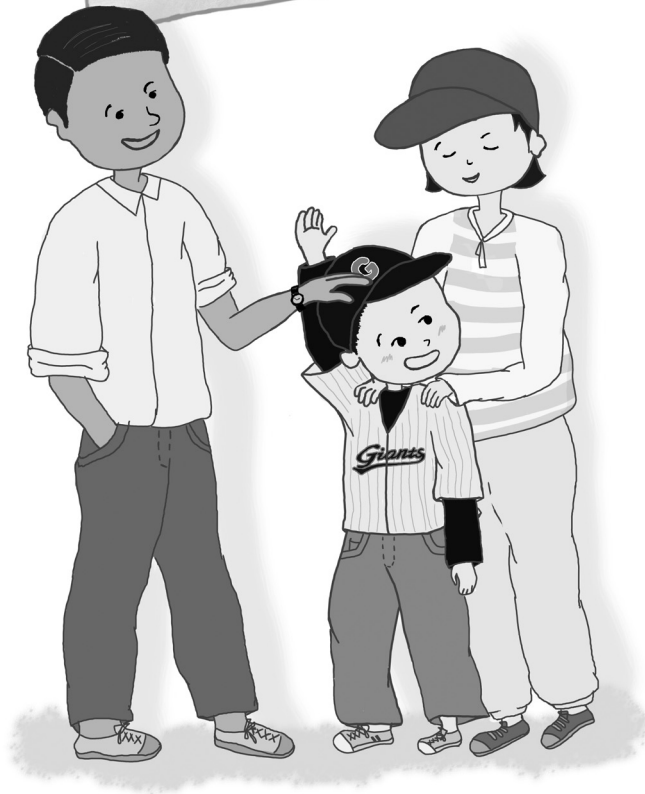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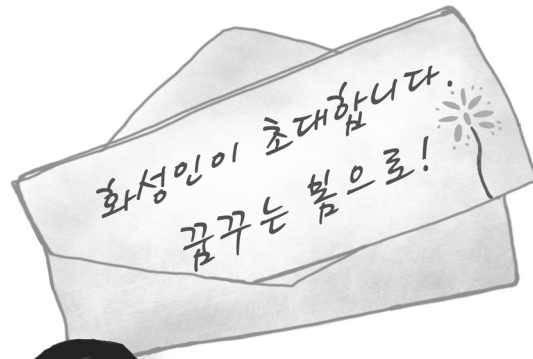
솔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솔숲 향기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엄마랑 풀꽃 전시회 구경 오너라.”

화성인 아저씨가 내게 무엇인가 내밀었다. 뽀뽀한 전시회 초대권이다.

나는 두 손을 탈탈 털고 초대권을 받았다. 초대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화성인이 초대합니다. 꿈꾸는 봄으로!**



지구를 사랑하고 시와 나무와 숲을 사랑합니다.  
부산 남산동에서 금샘마을신문 편집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오 륝 도 이야기

손혜원

## 1. 새로운 친구

“엄마, 여기가 어디야?”

갈매기 단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엄마는 내일 알아보자며 단이를 안고 기록기록 자장가를 불렀어요. 파도도 스룩스룩 장단을 맞추고요. 단이는 곧 달콤한 꿈나라로 갔어요.

‘여기서 우리 아들 단이를 잘 키워야지.’

떠나온 곳에서는 단이가 깃털을 뽑히는 괴롭힘을 당했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느라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웬 갈매기가 단이에게 다가왔어요.

“넌, 어디서 왔니?”

“나는 저 먼 섬에서 왔단다.”

낮선 갈매기 깃털은 진줏빛으로 반짝반짝 윤이 났어요.

“잘 왔어. 여긴 오륙도라는 섬이지.”

단이와 또래로 보이는 갈매기는 매우 친절합니다.

“난 수리야.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나는 단이야. 사이좋게 지내자.”

수리가 단이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흔듭니다. 단이의 가슴 속에 새로운 희망이 고개를 내미는 것 같아요.

엄마가 먹이를 갖고 왔어요. 단이가 모처럼 음식을 맛나게 먹습니다.

“우리 단이 잘 먹는구나. 어서 튼튼한 갈매기가 되어야지.”

엄마는 가슴이 뭉클해져서 눈가를 훔칩니다.

“단아 노을자.”

수리가 머리에 예쁜 조개 핀을 꽂고 놀러 왔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리라고 합니다.”

“예쁜 아이로구나. 우리 단이와 사이좋게 지내렴.”

“어어! 수우리가 외왔구나.”

단이는 수리가 곁에 내려앉자 말을 더듬거립니다.

“네 얼굴이 노을빛 같애.”

수리의 말에 단이는 부끄러워 엄마 뒤로 숨었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지요.

“내가 오륙도의 비밀을 알거든. 너에게만 알려 줄게.”

수리가 앞장서서 날아갔어요. 단이도 영성한 깃털을 펴리며

열심히 따라갔지요.

“이 섬은 다섯 개였다가 어떤 때는 여섯 개로 보이지?”

“왜 그렇게 되는데?”

“방패섬과 솔섬이 아래는 붙어 있거든. 물이 들어오면 두 개로 보여.”

수리의 설명에 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리섬과 송곳섬, 굴섬과 등대섬도 멋있지?”

단이는 수리의 손짓을 따라 섬을 주욱 둘러보았어요.

“야야! 솔섬 위에는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네.”

단이가 신기해서 소나무를 바라봅니다.

“바닷바람을 견뎌 나무라서 튼튼하고 굳세지. 우리도 저렇게 커야 한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신단다.”

단이는 자신의 야원 모습을 돌아보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음식을 골고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수리의 자랑스러운 친구가 될 거야.’

‘꼬르륵꼬르륵.’

수리와 단이의 배에서 동시에 소리가 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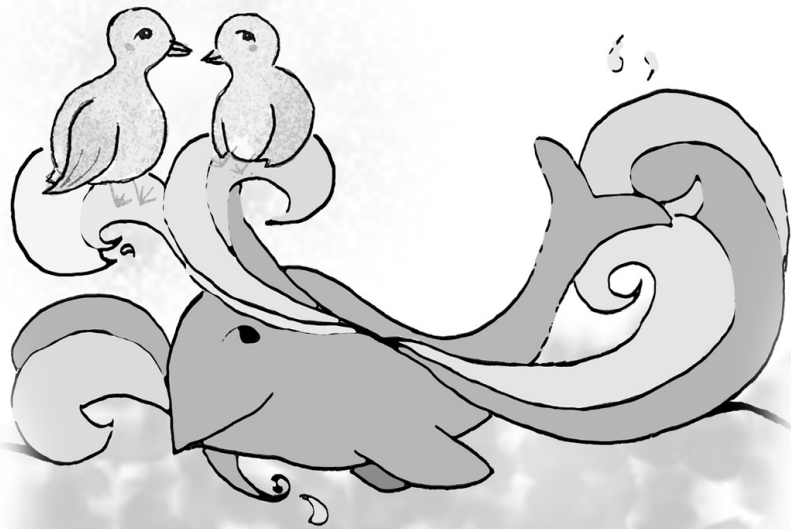
“수리섬의 전설은 다음에 얘기해 줄게.”

“그래, 다음에 얘기해 줘. 오늘 여러 가지로 고마웠어.”

단이는 갑자기 부자가 된 것처럼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그날 밤 단이는 수리와 파도 타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엉덩이 부근이 간질간질해서 내려다보니, 파도가 꿈틀꿈



틀 푸른 고래로 변하지 뭐예요. 푸른 고래는 하얀 물 분수를 푸우  
내뿜으며 앞으로 앞으로 헤엄쳐 나갔습니다.

## 2. 수리섬의 전설

바닷물이 금빛으로 빛나는 날입니다.

수리가 웃음을 머금고 날아왔어요.

“단아, 우리 엄마가 놀러 오래.”

단이와 엄마는 수리네 집에 놀러 갔어요.

‘갈매기 등지 75호’ 라는 문패가 햇살에 반짝거렸어요.

수리 엄마가 대문까지 나와서 둘을 맞이했어요.

“단아, 이 섬에 이사 온 걸 환영해요.”

“고마워요. 수리 덕분에 우리 단이가 많이 명랑해졌어요.”

단아 엄마도 모처럼 수다를 떨었어요.

수리 엄마가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 수리섬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독수리가 살았답니다.”

“독수리요? 새 중의 왕?”

“네, 그 독수리들은 오래 사는 비법을 알았지요.”

“어떻게요?”

“독수리는 마흔 살쯤 되면 부리도 무더지고 깃털도 빠진답니다.”

“그런데요? 그 독수리들은 어떻게 해서 오래 살았지요?”

“무던 부리를 절벽에 부딪쳐 빼 버렸답니다.”



“어머! 아팠겠다. 피도 흘렸을 텐데.”

수리 엄마는 ‘물론 그랬겠지요.’ 하면서 새로운 삶이 어디 그리  
쉽겠냐 했지요.

무더진 부리가 빠진 곳에서 새 부리가 올라오고 그 부리가 튼튼  
해지면 현 발톱을 사정없이 뽑아 버리고 새 발톱으로 영성한 깃털  
을 말끔히 뽑아 버렸다고 했지요.

“그럼 날지 못하겠네요?”

단이 엄마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수리 엄마를 쳐다보았  
어요.

“기다려야지요.”

“뭘 기다리는데요?”

단이 엄마도 수리 엄마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세월이 지나면 새로운 깃털이 돋어나 힘차게 날게 되지요.”

“그래요? 거참 현명한 독수리였군요.”

수리 엄마는 다시 얘기를 이어 갔어요.

“그런 독수리의 모습을 우리 선조 갈매기도 본을 받았답니다.”

“좋은 이웃을 둔 덕분이군요.”

“남의 것도 좋은 점은 본받아야지요. 그런데 독수리는 점차 없어  
지고 우리 오륙도 갈매기도 게을러졌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이 엄마도 마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고개만 갸웃거렸어요.

“수리와 단이를 단련시키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도 튼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궁리를 해야 합니다.”

먹을 것만 걱정하던 단이 엄마도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지요.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해 준 오륙도가 정말 고맙게 느껴졌어요.

엄마들이 얘기를 나누는 동안 단이와 수리는 오륙도를 날아다니며 신나게 놀았어요. 그 사이 바다는 주홍빛으로 물들어 오륙도를 그림처럼 수놓았군요. 등대섬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어두워지는 바닷길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 3. 폭풍우 치던 날

*우르르 쿵쿵*

천둥 번개가 무섭도록 치는 날이었어요. 산더미 같은 파도가 오륙도를 집어삼킬 듯 달려듭니다. 방패섬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그런 날이었지요.

“단아, 이런 날은 집 밖으로 나가면 위험해.”

엄마는 단이를 품에 안고 낮잠을 청했지요. 엄마는 고단한지 금방 잠들었어요.

하지만 단이는 몰래 등지를 빠져나와 수리네로 향했어요.

*휘리릭 휘리릭*

세찬 바람이 사정없이 등짝을 밀어냅니다.

“앗! 큰일 났다. 어쩔 좋아, 엄마 말을 들을걸.”

집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어요. 하지만 바람을 안고

날기에는 힘이 부족했지요. 단이는 할 수 없이 수리네로 갔어요. 날개가 흠뻑 젖도록 고생하여 겨우 도착했답니다.

수리네 대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기척이 없네요. 날갯죽지에 힘이 쭉 빠집니다.

하늘만 쳐다보며 후회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수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단이를 바라보고 있었죠.

“단아! 이 빗속에 웬일이니?”

수리는 걱정이 되어 어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심심하지 않니? 우리 굴섬에 가 보자.”

수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외출할 준비를 하고 나왔어요. 들어서 집 밖으로 나오니 온 세상이 비바람뿐이네요. 수리의 예쁜 날개도 금방 비에 젖어 버렸어요.

하지만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굴섬을 향해 날아갔어요. 온갖 고생을 하여 겨우 굴섬에 도착했지요.

그곳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늑한 곳이었어요.

마주 보고 앉으니 가슴이 뛰고 얼굴도 달아오릅니다. 수리의 얼굴이 빨갱게 물들었어요. 단이도 어느 사이에 깃털도 많아지고 몸집도 튼튼해졌군요.

둘은 바짝 다가앉았어요. 서로의 심장 소리가 천둥 치는 것 같았죠.

그때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단아.”

“수리야.”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두 엄마가 아이들을 찾고 있었어요.

단이와 수리는 얼른 굴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쿵쿵’ 더 큰 소리를 냅니다.

돌아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수리는 마음이 아팠어요.

“단아, 지금이라도 엄마를 부를까?”

“아냐, 우리 힘으로 집으로 돌아가자.”

수리도 머리를 끄덕이며 단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데 조금 전처럼 기분 좋은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단아, 날씨 좋은 날 부모님 허락받고 놀러 오자.”

둘이는 돌아갈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비바람이 더 거세게 불고 있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출발하였죠.

“아얏.”

얼마 못 가서 수리의 날개가 이상한 물건에 부딪혔어요. 해변에 떠다니던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 온 것이지요.

“괜찮니?”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둘은 다시 굴섬으로 물러갔어요. 엄마가 걱정할 것 같아 수리는 안절부절못했어요.

“단아, 너 혼자서라도 가서 소식 전해 줘.”

“내일 아침까지 괜찮겠니?”

단이는 미안한 마음에 수리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단이가

비바람을 뚫고 무사히 집에 갔을 때입니다. 온 마을의 갈매기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단아, 우리 수리는?”

수리 엄마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물었어요.

“날개를 다쳐 굴섬에 있어요.”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가 바람에 날립니다.

“뭐라고? 크게 얘기해 봐.”

수리 엄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수리는 날개를 다쳐 굴섬에 남아 있는가 봐요.”

단아 엄마가 찢찢매면서 얘기를 전했어요.

“악! 수리야…….”

수리 엄마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럼 수리를 어쩔까?”

마을 갈매기들도 우왕좌왕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단아는 구석에서 젖은 몸을 털 생각도 못 하고 있었죠. 한참 의논한 끝에 내일 아침 비가 개면 수리를 데리러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폭풍주의보가 내려지면 그 누구도 외출을 못 한다는 것을 마을 법으로 정했답니다.

#### 4. 등대섬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솔솔 날아오는 봄날이었어요.

단이는 어떤 결심을 하고 수리네로 갔어요.

“수리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리 엄마는 단이의 늙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넌, 단이 아니냐? 수리는 외출하고 없단다. 다음에 오렴.”

수리 엄마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폭풍우 치는 날 수리와 굴섬에 간 일은 죄송했습니다. 오늘 수리 어머니께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단이는 다부진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수리와 앞으로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단이의 모습을 눈여겨본 수리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다 큰 총각인데. 어서 장가가야지.”

단이는 뿔 듯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녁노을이 일렁이는 바다는 커다란 한 송이 꽃 같았어요.

다음 날 단이는 아침부터 수리를 만나러 갔어요.

날씬한 아가씨가 문을 열어 주었어요.

“수리야, 너 수리 맞지?”

“네! 단이구나.”

수리는 몰라보게 예뻐지고 성숙해 보였어요. 둘은 너무 반가워서 손을 잡고 흔들었어요. 단이는 수리에게 등대섬에 놀러 가자고 했어요. 수리도 기뻐하며 도시락 준비를 하겠다고 했어요.

소풍 가는 날은 날씨도 화창하고 파도도 잔잔했어요.

“수리야, 우리 결혼하자.”

“아이 참!”

수리는 부끄러운지 거절하는 것인지 그만 뒤돌아섭니다. 단이는 안타까워서 조심조심 수리 곁으로 다가섰어요. 어쩔 줄 몰라 우물쭈물 하고 있는데 단이의 깃털에 머리를 살며시 기대는 수리.

단이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먼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도시락을 먹었어요.

수리 모습을 지켜보는 단이. 수리도 슬쩍슬쩍 단이의 모습을



훔쳐 보았지요.

온갖 비바람을 다 막아 줄 정도로 든든해 보였어요.

“우리의 꿈, 우리 아이들이, 또 그 아이의 아이들이 이어 가겠지?”

“그렇겠지.”

수리는 아무래도 부끄러운지 짙막하게 대답했어요.

단이와 수리의 결혼식 날에는 마을 갈매기들이 다 모여 축하해주었어요.

젊은이들이 드물어서 오랜만에 보는 마을 잔치지요. 모두 기뻐하며 들의 장래를 위해 덕담을 합니다.

“새신랑, 행복하게 잘 살아라.”

“수리야, 잘 먹고 아들딸 쑥쑥 낳으렴.”

“애들은 우리가 돌봐 줄게.”

아기 갈매기 울음소리를 들은 지도 까마득한 마을 갈매기들은 수리와 단이에게 희망을 걸어 봅니다.

“네,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새신랑이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저도요.”

신부가 조그마한 소리로 대답했어요. 파도가 살랑살랑 밀려와 오락도를 감싸 주었어요. 마을 갈매기들은 모두 기쁜 마음으로 마을 잔치를 즐겼답니다.



시인이자 미술심리치료사로서 그랜드 자연요양원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틈틈이 동화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 인생 체험 센터

안미란

송미송 여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다. 오늘은 아들이 새 학교에 간 첫날이다. 송 여사는 이제나저제나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느라 수도 없이 창밖을 기웃거렸다.

드디어 열리는 현관문 소리.

“다녀왔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다. 쌀가마니가 툭 떨어지는 것 같다. 가방은 거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누워 버렸다.

송 여사는 시간 맞춰 씻어 놓은 딸기를 내갔다.

“아드을! 잘 다녀왔니? 학교는 어땠어?”

“아이들이 나를 왕따 시켜요!”

왕따라니.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이거였다. 송 여사는 침을 꿀꺽 삼켰다. 아들의 푸념이 이어진다.

“쉬는 시간에도 자기들끼리만 쑥덕쑥덕, 점심시간에도 나만 따로 먹고.”

“학기 초라 서먹해서 그럴 거야.”

송 여사가 아들을 위로했다.

“여자애들이 더 무서워요. 아예 나랑 눈도 안 맞추는걸. 개들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송 여사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아들은 딸기를 먹느라 볼이 미어터질 것 같다.

“학교 가기 싫어요!”

송 여사는 가슴이 철렁했다. 겨우 3년밖에 안 다녔는데 해마다 3월이 되면 또 내뱉는 저 소리. 송 여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들을 달랜다.

“학교를 안 가면 어떡해. 네가 선생님이잖니? 눈 딱 감고 열심히 하면 금방 방학일 텐데 뭘.”

그렇다. 송 여사의 아들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올해 말은 6학년 아이들은 머리가 굽었다고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지어 어울리거나 하고 골치가 아프다.

아들은 내일 수업 때문에 준비할 게 많다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 음악 소리가 섞여 나온다.

송 여사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할 수만 있다면 아들의 고민을 대신 풀어 주고 싶다. 하지만 아무리 엄마라도 할 수 없는 게 있는지 머리만 지끈지끈 아팠다.

이럴 때는 텔레비전이라도 보는 게 낫다. 송 여사는 행여 아들에

게 방해가 될까 봐 텔레비전 소리를 아주 작게 틀었다. 농구경기, 춤추는 가수들, 부잣집 아들과 가난한 집 딸의 사랑, 만화영화……. 뭘 봐도 시시껄렁하다.

송 여사는 계속 채널 버튼을 눌렀다. 꺄, 꺄, 꺄, 꾸꾸꺄, 꺄! 그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홈쇼핑이었다.

“당신의 인생 고민을 한방에! 한방에 해결해 드리는 획기적 상품. 특별기획가로 판매 중입니다. 남은 시간은 겨우 이 분, 서두르십시오!”

인생 고민을 해결해 준다고? 참, 요즘 홈쇼핑은 별걸 다 판다는 생각을 하면서 송 여사는 눈과 귀를 기울였다.

신사복을 입은 남자가 고운 빛깔의 유리병을 들었다. 안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들어 있다.

“그러니까 요 유리병 안에 감정의 엑기스가 들어 있단 말이지요. 우리는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 체험을 제품으로 만드는데에 성공했습니다.”

맞은편에 서 있는 여자는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이다.

“어머나, 그래서 국제발명대회에서 금상을 탄 거군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사는 거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 볼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이 제품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영화나 소설 따위를 통해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 상황의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혹시 자기 눈물 맛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 그게 울다가 입으로 들어가는 수도 있지 않나요? 짹짹한 게…….”

“우리는 인간의 신체가 감정에 따라 다른 체액을 만든다는 사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의 맛은 시고, 기쁠 때 흘리는 눈물은 짠맛이 강합니다. 화가 나면 피가 뜨거워지고 무서우면 땀이 차가워져요. 우리는 컴퓨터로 이런 자료를 모조리 분석했어요. 사람의 피나 눈물, 땀 대신 자연에서 얻은 액체들을 적절하게 섞거나 덜어내면 사람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액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일종의 향수처럼.”

여배우는 새파란 병을 들더니, 한 모금 꿀꺽 마셨다.

“실제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한번 먹어 볼까요?”

여배우는 갑자기 오슬오슬 떨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꿈꾸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추워요. 바닷바람이 부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소리가 들릴 듯…… 가슴이 아려요. 내 가슴에서 자디잔 자갈들이 파도에 부딪치면서 좌르륵 구르는 것 같아요.”

여배우는 이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슬픔에 휩싸여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잊은 것 같다. 방청객이 따라 우는 소리도 들렸다. 여배우는 울면서 기쁜 목소리로 외쳤다.

“아, 올해 연기상은 제 차지가 될 것 같아요. 이 제품만 있다면.”

남자가 말했다.

“이 제품은 많은 기업체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주부의 마음을 느껴서 편리한 청소기를 개발한 곳이 있지요? 오십 세의 남자 사장님이 바로 요것, 보라색 약을 드셨거든요. 분홍빛 약을 단체로 구입했던 곳은 장난감 회사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공룡으로 변하는 식탁 의자 말입니다. 그건 이 제품을 먹고 유아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본 덕입니다.”

눈물을 말끔히 닦은 여배우가 제품을 쪽 보여 주었다.

“이건 막 사춘기가 시작되는 여자 어린이, 이쪽은 남극 탐험을 떠난 모험가, 이쪽은 젊은 아가씨……. 여자의 마음을 알면 초절정 인기남이 되는 건 순식간이 되겠지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리 체험하고 그 감정을 느껴 보세요. 당신의 고민이 해결됩니다!”



송 여사는 여자 어린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어찌면 아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상담전화는 곧장 연결되었다.

“어린이들 마음이에요.”

송 여사가 원하는 제품을 말하자 상담원이 말했다.

“어린이 마음도 종류가 많아요. 우울증을 앓는 어른에게 추천할 만한 것, 운동경기를 할 때 아무 사심 없이 열중해서 놀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연구소 직원이라면 호기심과 놀라움을 반반 섞은 게 좋고요……. 고객님께는 소꿉놀이 세트 어떨까요? 이걸 먹으면 집안일이 즐거워지거든요.”

“아뇨. 제 아들 주려고요. 6학년쯤 되는 여자 어린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라면 좋겠는데.”

“탁월한 선택이에요.”

송 여사는 어린이 마음 세트를 몽땅 사 버렸다. 덤으로 하나 더, 원 플러스 원, 증정품에 사은행사, 게다가 신상품 견본까지 없어서 사니 흐뭇했다. 돈이 좀 많이 나갔지만 어차피 학교 선생님은 여러 학년을 번갈아 맡아야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았다.

며칠 뒤 인생 체험 센터에서 보내온 어린이 마음 세트가 도착했다.

아들은 유리병에 든 액체를 마시지 않으려고 버렸다. 피로회복제나 영양제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지 먹기 싫다는 것이었다. 아들

은 어릴 때부터 어디가 아프건 아프지 않건 약이란 약은 무조건 싫어했다. 송 여사는 제일 조그만 병에 든 주황색 액체를 가리켰다.

“그럼 오늘은 딱 요것만 마셔. 아주 짝끔이지?”

그래도 아들은 영 내키지 않아 한다. 송 여사가 먼저 한 모금 들이켰다.

“그럼 반반 먹을까?”

아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송 여사는 기쁜 마음에 오늘 저녁 반찬은 아들이 좋아하는 돼지 갈비를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려면 이것저것 장을 봐야 한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아들이 시장에 함께 따라나섰다.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송 여사는 가슴이 팍 차오르는 것처럼 뿌듯했다. 아들이 어느새 이렇게 큰 것일까. 아니면 아까 먹은 제품 덕일까.

송 여사에게도 효과가 나타나는지 왠지 기분이 들뜨고 신이 났다. 날마다 보던 골목이 마냥 신기하게 느껴졌다. 키가 자기보다 두 뼘이나 더 큰 아들을 앞세우고 걸어가니 세상이 다 내 것 같다. 한껏 우쭐해져서 저절로 콧노래가 나온다. 길을 가면서도 똑바로 가지 않았다. 요리로 한 번 조리로 한 번, 발끝으로 풀도 건드리고 까치발로 걷다 깨금발로 뛰었다.

“한라봉이다!”

시장 어귀에 이르렀을 때다. 큼직한 한라봉 무더기가 여봐란듯

이 있다.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과일 가게지만 오늘은 송 여사를 위해 딱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같았다. 다른 과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러니 그건 사 줘야 한다.

“한 개는 손에 들고 갈래요.”

아들은 따로 한 개만 꺼내서 손에 쥐었다. 밝은 주황색에 향긋한 내음이 난다.

“꼭지만 볼록해서 우스워요.”

아들은 걸으면서 한라봉이 공이라도 되는 양 위로 던졌다가 받았다가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이리저리 주고받으며 장난을 쳤다. 마치 애들처럼 한라봉이 인형인 양 종알종알 속삭이기도 했다.

송 여사는 혀끝에 침이 고인다.

“지금 먹을까?”

“아뇨.”

“지금 먹어도 되는데.”

“싫어요.”

아들은 약 올리듯 송 여사 눈앞에서 한라봉을 가지고 논다.

띠링띠링. 뒤쪽에서 다가온 자전거가 종을 울렸다. 아들은 그 자전거를 피하려다 얼떨결에 한라봉을 떨어뜨렸다. 한라봉은 데굴 데굴 구르더니 차길까지 굴러갔다. 초록색 신호등이 깜빡깜빡 거렸다.

“어어어, 안 돼!”

아들이 차길 쪽으로 뛰어갔다. 송 여사는 펄쩍 정신이 들어 다급



하게 외쳤다.

“뛰지 마. 위험해!”

아들은 어릴 적에 굴러가는 축구공을 잡으려다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다. 그때의 악몽이 새삼 떠올랐다.

다행히 아들은 차도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 사이 신호등이 바뀌었다.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납작하게 엎드려서 쇠쇠 숨을 고르던 자동차들이 일제히 부웅 하고 달려 나갔다.

택시 바퀴에 한라봉의 귀퉁이가 터졌다. 그다음 오토바이에 몸 반쪽이 동강 났다. 그다음 차는 거대한 트럭이었다.

송 여사와 아들은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깎네.”

“…….”

둘은 티덜티덜 걸어서 정육점으로 갔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다시 채소를 사고 세탁소에 가서 맡겨 놓았던 바지를 찾을 때 까지도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송 여사가 물었다.

“너, 한라봉 못 먹어서 속상해서 그러지?”

아들은 아무 말이 없다. 눈만 빨갛다.

“나중에 또 사면 돼. 아깝지만 괜찮아.”

송 여사는 아들을 위로해 주고 싶었다. 어깨를 다독거려 주려는데 아들이 피했다.

“엄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른다고? 못 먹게 돼서 이러는 거 아니야?”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차에 치이고, 또 치이고. 결국 터져서…….”

송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똑똑하고 운동 잘하고 흰칠한 키에 잘생긴 아들은 마음씨까지 착했다. 어린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게 자기 적성에 딱 맞는 것 같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송 여사는 아파트 입구 나무 의자에 앉았다.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개나리가 소란스럽게 재잘거리듯 피었다.

‘노란 가방……. 맞아, 처음 메고 간 가방은 노란색이었어.’

오늘 아침, 아들은 군말 없이 학교에 갔다. 뺏뺏하게 깃을 세워 다린 셔츠에 까만 가방을 든 세련된 모습으로 말이다. 가방을 메고 씩씩 하게 집 밖으로 나서는 아들의 모습은 늘 흐뭇하였다. 노란 유치원 가방도 그랬고,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초등학교 가방, 야구 공을 넣어 다니던 가방, 참고서가 잔뜩 들어 있던 배낭……. 가방이 바뀔 때마다 아들은 자랐다.

“여기 계셨어요?”

어느새 아들이 곁에 왔다. 이제 퇴근하는 길인가 보다. 송 여사가 물었다.

“잘 다녀왔니? 오늘은 어땠어?”

아들이 엄지를 치켜세웠다.

“우리 반이 일등 먹었어요. 완전 짱이죠?”

“애들 데리고 무슨 경주라도 한 거니?”

아들이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침에 운동장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 한 거요. 너무 이  
빠서 내가 애들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한테 일등상 주자고요.”

“잘했구나.”

아들은 송 여사의 손을 잡아 주었다. 둘은 나란히 걸어서 집으로  
향했다. 걷는 동안에도 아들은 쉴 새 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집까지 가려면 곧게 뻗은 좁은 길을 십여 분은 걸어야 한다.  
가끔 골목 안까지 들어오는 차 때문에 둘은 옆으로 비켜서야 했다.  
아들은 송 여사가 담 쪽에서 걷게 자리를 바꿨다. 길 한가운데보다  
는 그쪽이 안전하다.

“체육 마치고 교실로 들어가는데 애들이 복도에서 우르르 뛰잖  
아요. 그래서 제가 우측통행! 하고 외쳤지요.”

송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제법 선생 노릇을 했기 때문  
이다.

“그래, 그래. 애들이 잘 따르던?”

“보택이 녀석만 빼고요.”

보택이라면 송 여사도 솔하게 그 이름을 들었다. 아들네 반의  
최고 말쑥꾸러기이다. 새침데기 하영이, 우유 대장 광식이, 방귀쟁  
이 표흠이……. 하도 듣다 보니 어지간하면 기억이 날 정도이다.

“고놈이 또 왜? 우리 아들을 애먹였단 말이지.”

“에이, 엄만. 끝까지 들어 봐요.”

아들은 갑자기 몸을 꺾 돌렸다. 거꾸로 걸으면서 보택이 흉내를 낸다.

“ 쌤! 보세요. 우측통행 맞지요? 맞지요?”

몸을 돌려 거꾸로 걸으면 왼쪽 줄에 있더라도 자기 처지에서는 오른쪽에서 걷는 게 된다. 아들은 보택이 사랑을 한다.

“개가 말썽이 심해서 그렇지 아주 영리해요.”

송 여사는 아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다. 그러다 보니 금세 집 앞 슈퍼마켓에 닿았다. 둘은 저녁 찬거리를 사 가기로 했다.

계산대에는 젊은 아가씨가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송 여사가 물었다.

“아가씨가 이 집 조카 분 맞지요?”

“네. 맞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가씨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송 여사는 이 집 주인과 친한 사이라 미리 들어 알고 있었다. 조카는 이번에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이 났는데 한 달 정도 시간 여유가 있어서 아침에는 근처 도서관을 가고 오후부터는 일손을 도와준다고 했다.

“호호호, 우리 아들도 교편을 잡고 있지요.”

송 여사는 아들을 가리켰다. 흰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가 슈퍼마켓 조명 아래 더 눈부시다.

그때 마침, 아들이 채소 진열대 앞에서 송 여사를 불렀다. 아들

은 풋고추를 들고 있다.

“이거 보세요. 맵게 생겼지요? 점심 급식에 고추 튀김이 나왔는데, 세상에 우리 반 녀석들 어찌나 잘 먹던지.”

그러면서 아들은 또 목소리가 가늘다는 옆 반 선생님 흉내를 낸다.

“어머 어쩐! 3반 아이들은 고추까지 잘 먹네요. 우리 반은 잔반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송 여사는 아들이 점잖지 못하고 애들같이 구는 것 같아 조금 염려스러웠다. 그래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요즘 애들이 고추를 먹는다고? 암튼 너희 반은 명물이구나.”

“그렇다니까요. 한 녀석이 고추튀김을 들고서는 ‘우와, 내 꺼 되게 크다.’ 이러니까 또 다른 녀석이 ‘내 꺼 더 크다.’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크면 더 매운 줄 알고 빠기는 거죠. 평소 편식하던 아이들도 덩달아 먹게 되고. 그런데 나라고 빠질 순 없잖아요?”

송 여사의 눈이 동그래졌다.

“빠질 순 없다니?”

“선생님 고추는 대빵으로 크다!”

순간 송 여사는 앞이 노랗게 보였다. 얼른 아가씨의 낫빛을 살폈다. 아빨싸, 이미 들었는지 뺨이 발그레하다. 어색한 침묵 사이로 텔레비전 뉴스가 저 혼자 떠들었다.

“결국 인생 체험을 시켜 준다면 마음의 약은 사기라는 것이 들롱났습니다. 이들 일당이 홈쇼핑에서 판매한 제품은 그저 설탕물에

식용색소 성분만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운영하던 인생 체험 센터를 긴급 수색하고…….”

송 여사는 아들의 모습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아들은 얼이 나간 사람처럼 아가씨를 바라보고 있다. 아들의 눈이 반짝이는가 싶더니 아가씨의 낯빛이 옅은 듯 발개진다.

〈열린아동문학〉 2011. 봄



부산대학교에서 국문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으며, 세 딸과 함께 행복한 꿈을 꾸는 동화 작가. 작품으로 〈내일 또 만나〉, 〈어린이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등이 있습니다.

# 엄마도 처음이에요

이경미

쓰윽 쓰윽, 딱딱 딱딱.

빨간 김치와 하얀 양파가 딱딱 딱딱 소리와 함께 점점 작아집니다.

엄마는 밀가루에 계란을 넣습니다.

밀가루 봉지를 툭툭 털어 넣습니다.

“어? 밀가루가 다 떨어졌네.”

지글지글, 탁.

주홍빛 김치전이 맛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가은이는 뜨거운 김치전을 맛나게 먹습니다.

어느새 엄마표 김치전이 바닥이 났습니다.

“밀가루 사러 가야겠네.”

엄마는 손을 닦습니다.

그때, 일곱 살 가은이가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옵니다.

“엄마, 제가 다녀올게요, 네? 밀가루 사 올 수 있어요, 네?”

엄마는 바깥을 봅니다.

“곧 어두워질 텐데 엄마가 다녀올게.”

가은이가 실망한 얼굴입니다.

가은이는 가게까지 혼자 가서 밀가루를 사 오고 싶습니다.

가게는 집에서 보일 만큼 가깝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가은이 혼자 심부름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바깥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습니다.

“엄마아, 나 갔다 올 수 있어. 이제 세 밤 자면 초등학교 되는데  
진짜 혼자 갔다 올 수 있어. 엄마아, 응? 엄마아.”

가은이 모습이 아주 당당합니다.

엄마는 가만히 가은이를 내려다봅니다.

종이에 ‘밀가루 한 봉지’ 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천 원 석 장을  
줍니다.

“가은아, 가게에 가서 ‘밀가루 한 봉지 주세요.’ 하는 거야. 그리



고 거스름돈 받아 오는 건데……. 진짜 할 수 있겠어?”

가은이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엄마는 휴대전화기를, 건넵니다.

가은이는 무지 신 났습니다.

한 손에 휴대전화기를, 한 손에 쪽지와 돈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밀가루 한 봉지 주세요, 밀가루 주세요, 밀가루 주세요…….’



엄마는 시계만 봅니다.  
긴바늘이 3에 있습니다.

시계가 커다란 풍차 같습니다.  
고장 난 풍차처럼 날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엄마는 고장 난 풍차 날개를 돌리려 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깥을 다시 내다봅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엄마가 엄마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언제나 잘 걸리던 전화가 오늘은 연결이 안 됩니다.  
가슴이 쿵쿵쿵 마구마구 뛰니다.  
전화를 다시 겁니다.  
전화 연결이 끊어집니다.  
눈이 너무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엄마, 왜?”  
가은이가 아주 신 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가은아 지금 어디야?”

“지금? 집 앞이야. 이제 들어갈 거야. 나 밀가루 샀어, 엄마.  
전화 끊어.”

엄마는 글썽이는 눈물을 닦고 다시 시계를 봅니다.

꼼짝없이 가만있던 시곗바늘이 어느새 4로 움직였습니다.

이윽고 철커덕하는 소리와 함께 가은이가 들어옵니다.

가은이는 싱글벙글 웃음이 가득합니다.

엄마는 가은이를 보자마자 안아 줍니다.

가은이는 엄마가 이상합니다.

“엄마, 눈이 왜 그리 빨개?”

“글썸, 엄마 눈이 빨가니?”

“엄마 걱정 많이 했어? 왜? 난 이제 초등학생이 될 거야.

이런 심부름은 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마, 알았지?”

가은이가 엄마를 꼬옥 안아 줍니다.

엄마의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쓰윽 쓰윽 딱딱 딱딱 지글지글 탁!

맛있는 주홍빛 김치전이 만들어집니다.

‘땡땡’

“아빠다!”

가은이가 달려갑니다.

“아빠 아빠, 내가 말이야. 아까…….”

가은이는 큰 목소리로 자랑을 합니다.

아빠는 빙긋이 웃으며 가은이와 엄마를 번갈아 봅니다.

그리고 꼭 안아 줍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새로운 세상을 배워 가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동화로 만들고 싶습니다.

# 푸른 황새 씨

임제다

꼬르륵.

황새 씨는 배가 고팠어. 요즘 통 먹질 못했거든.

“옛날이 좋았지.”

황새 씨는 주린 배를 움켜쥐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

굶주린 황새라니, 옛날 같으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황새 씨는 한마디로 최고의 배달부였어. 많은 황새가 집집이 돌아다니며 아이를 물어다 주었지만, 황새 씨만큼 인기 있는 배달부도 드물었지.

황새 씨가 물어다 준 아이들을 보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했어. 사람들은 아이를 받은 보답으로 황새 씨에게 먹을 음식을 대접했어.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지만 음식을 마련해 준 성의가 있으니까 음식도 배불리 먹었지. 황새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방금 막 구운 따끈따끈한 빵이었어.

황새 씨는 인기가 많아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이들을 배달했

어. 황새 씨의 아이들이 워낙 사랑스러워서 사람들은 너도나도 아이들을 원하게 되었지. 그래서 아이들의 수가 갑자기 늘어난 시기도 있었어. 사람들은 황새 씨에게 공로상이라도 주어야 한다고 했어. 하지만 황새 씨는 거절했지. 물론 아주 공손한 태도로 말이야.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황새 씨는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이 마련해 준 음식을 먹고 조용히 돌아갈 뿐이었어.

그랬던 황새 씨가 지금은 배에서 들리는 꼬르륵 소리를 듣고 있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지. 요즘은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드물거든. 거기다 사람들의 인심이 참 고약해졌어. 어쩌다 아이를 물어다 줘도 예전처럼 멋들어진 진수성찬을 대접하지를 않는 거야. 그뿐이면 차라리 다행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를 가져와서 어찌라는 거야, 이 멍청한 황새개!”

이런 소리라도 듣게 되는 날에는 황새 씨는 기운이 쭉 빠지면서, “나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건가.” 하고 중얼거리게 되는 거야.

황새 씨가 나무 위에 앉아 어디 아이를 원하는 집이 없나 둘러보고 있을 때였어.

“이봐, 자네 황새 씨가 아닌가!”

어디론가 바빠 날아가던 동료 황새가 황새 씨를 알아보고 잠시 나무에 내려앉았어.

“이런, 이런, 최고의 배달부 황새 씨 꼴이 말이 아니구먼. 도대체 며칠을 굶은 게야?”

황새 씨는 멧쩍게 웃으며 괜히 깃털을 골랐어.

“고집 그만 부리게. 아이 배달은 이제 망했어. 더는 가망이 없다고.”

“그렇지 않아! 아직 아이를 원하는 집이 많이 있다고.”

황새 씨의 말에 동료 황새는 고개를 저었어.

“시대가 변했어. 이제 사람들은 아이를 원하지 않아. 대신 물건들을 원하지. 자네도 이제 우리 ‘황새 택배’에서 함께 일하는 게 어떤가? 머지않아 이 사업은 대박이 날 거라고.”

그 말에 황새 씨는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를 질렀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물건을 배달하라니!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소리!”

그러자 동료 황새도 화를 내는 거야.

“에잉, 이런 못난 황새! 그깟 자존심이 밥 먹여 준다던가!”

그러고는 배고픈 황새 씨를 내버려 두고 다시 어디론가 바빠 날아갔지. 흰 황새 그림이 그려진 커다란 가방을 둘러메고 말이야.

“물건을 배달하라니. 우리는 황새라고! 아이를 물어다 주는 일이야말로 우리 황새들의 일이라고!”

황새 씨는 혼자 씩씩거렸어.

그런데 얼마 후, 황새 씨는 결국 자존심을 꺾을 수밖에 없었어. 바로 황새 아가씨 때문이었지.

황새 씨는 황새 아가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 그토록 아름다운 아가씨는 태어나서 처음 보았지. 하지만 황새 아가씨의 눈에는 황새 씨가 조금도 멋있어 보이지 않았던 거야.

“나는 이미 사랑하는 이가 있어요.”

황새 아가씨가 도도하게 말했지.

“그게 누군가요? 제발 알려 줘요.”

“나는 늘 먼발치에서만 그를 지켜보곤 했지요. 그는 최고의 배달부 황새 씨예요.”

“뭐라고요? 하지만 내가 바로 최고의 배달부 황새 씨인걸요.”

“말도 안 돼! 내 황새 씨를 모욕하지 마세요!”

황새 아가씨는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어. 그럴 만도 했지. 황새 아가씨가 기억하는 최고의 배달부는 지금의 황새 씨처럼 꾀죄죄하지 않았으니까.

“그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물어다 주었어요. 그는 눈처럼 하얗고 물처럼 투명하고 불처럼 정열적이었다고요! 당신 같은 황새 하고는 달라요!”

처음에 황새 아가씨는 황새 씨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 하지만 꾀죄죄한 걸모습과는 달리 여전히 당당한 황새 씨의 태도를 보고, 그리고 황새 씨의 거짓 없는 눈을 보고 그 말이 다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어.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건 지금의 황새 씨는 아니에요.”

황새 아가씨는 동정하는 눈빛으로 황새 씨를 바라보았어. 황새



씨는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어.

“배고픈 황새외는 결혼할 수 없어요. 나는 배고픈 건 싫어요.”

황새 아가씨의 그 말에 황새 씨는 ‘황새 택배’에서 일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지.

택배 일을 시작하면서 황새 씨는 굶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 칙칙하게 변해 가던 잇털의 색도 다시 뽀얗게 되돌아오기 시작했지. 힘없이 파닥거리던 날갯짓도 힘차게 푸드덕거리게 되었어. 황새 씨에겐 아주 잘된 일이었지. 무엇보다 잘된 건, 황새 아가씨가 드디어 황새 씨에게 마음을 열어 주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런데 황새 아가씨가 이런 말을 하지 뭐야.

“이상해요. 황새 씨의 잇털과 매끈한 다리, 그리고 아름다운 날개까지 모두 다 예전의 황새 씨가 맞는데, 눈빛은 예전의 황새 씨가 아닌 것 같아요.”

황새 아가씨는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그건 황새 씨에겐 당연한 얘기였어. 황새 씨가 옛날에 가졌던 그 눈빛은, 아이를 물어다 주는 최고의 배달부라는 궁지에서 나오던 눈빛이었으니까. ‘황새 택배’에서 일하는 택배 황새의 눈빛이 아니라.

황새 씨는 택배 일을 마치고 나면 늘 ‘아이를 원하는 집이 어디 없을까?’ 하고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렸어. 하지만 아이를 원하는 집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

어느 날, 하루 일을 끝낸 황새 씨는 마을에서 가장 큰 빵집을

지나고 있었어. 빵 굽는 냄새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았지. 황새 씨는 맛있는 빵을 사서 황새 아저씨와 나눠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빵집 앞에 내려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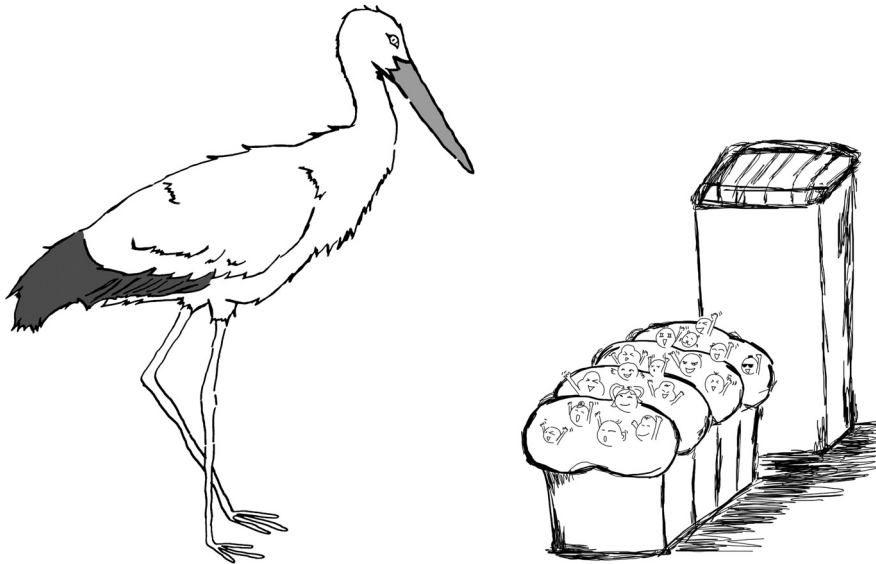
“이봐요, 멧쟁이 황새 아저씨. 우리도 배달해 주세요.”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 소리가 난 곳은 빵집 뒤편이었어. 황새 씨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 주위를 둘러보았어.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황새 아저씨. 제발 우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지만 애들아, 난 너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여기예요, 여기. 버려진 빵 위에 우리가 있어요.”



그제야 황새 씨의 눈에 푸른곰팡이가 보였어. 아니, 사실 황새 씨가 본 건 곰팡이 핀 빵들이었지.

“이런, 썩은 빵이잖아.”

오래되었거나 잘못 만들어진 빵이 잔뜩 쌓여 있었어. 그리고 빵 위에는 푸른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지.

“황새 아저씨, 아저씨는 배달부지요? 우리도 배달해 주세요.”

“뭐지? 지금 말하는 게 빵이야, 곰팡이야?”

황새 씨는 조금 어지러웠어.

“우리는 푸른곰팡이예요. 우리를 배달해 주세요.”

“배달해 달라니, 어디로 말이야?”

“어디든 이곳보다 좋은 곳으로요.”

황새 씨는 조금 짹짹한 기분이었어. 곰팡이 배달이라니. 곰팡이를 받고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너희는 곰팡이잖아. 곰팡이는 그러니까…… 너희를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곰팡이는 안 좋은 거잖아.”

“그럼 좋은 건 뭐가요?”

“음, 좋은 건…… 아이들이지! 그래, 아이들은 좋은 거야!”

그 말을 듣고 곰팡이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어. 그리고 다시 황새 씨에게 말했다.

“아이란 건 이제 막 태어난 존재들이지요?”

“그렇지. 이제 막 태어난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지.”

“그럼 우리도 아이예요. 우리도 막 태어났거든요.”

“그게 정말이니?”

아이라는 말에 황새 씨는 곰팡이들에게 아까보다는 조금 더 귀를 기울였어.

“정말이지요. 우리는 막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우리를 배달해주세요.”

“아아, 물론 아이는 좋은 거야. 그리고 아이를 배달해 주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 하지만 역시 곰팡이는…….”

황새 씨가 망설였어.

“우리가 안 좋은 곰팡이인 건 우리가 이곳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푸른곰팡이는 약이 되기도 해요. 페니실린이라고 하지요. 세균을 잡아 주는 약이라고요.”

“약이라고? 약은 좋은 거야, 그렇지?”

“그렇지요. 나쁜 병을 치료해 주는 게 바로 약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 우린 그냥 푸른곰팡이예요. 하지만 아저씨가 우리를 배달해 주면 우리는 약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난 푸른곰팡이들이 다시 또 약으로 태어난다고?”

“그래요, 맞아요!”

푸른곰팡이들이 외쳤어.

“우리는 약으로 다시 태어나요!”

하지만 황새 씨는 또 망설였어. 회사에 가방을 놓고 와서 곰팡이

들을 담아갈 수가 없었던 거야.

“황새 아저씨, 빨리요! 조금만 지나면 쓰레기차가 우리를 실어 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약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해요.”

“하지만 가방이 없어.”

“제발 우리를 배달해 줘요. 그럼 아저씨가 원하는 걸 들어줄게요.”

“원하는 거?”

“그래요, 뭐든 말해 봐요.”

황새 씨는 황새 아가씨를 떠올렸어.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황새 씨는 이렇게 말했지.

“나는 그냥, 황새 아가씨와 결혼해서 배부르게 살고 싶어!”

“아저씨 소원은 이뤄질 거예요, 어서 우리를 배달해 줘요!”

“하지만 가방이 없는걸.”

“괜찮아요. 아저씨는 크니까 우리를 모두 태워 줄 수 있어요.”

“곰팡이를 내 몸에 태운다고?”

황새 씨는 또 망설였어. 곰팡이를 몸에 태우는 건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았거든.

‘하지만 푸른곰팡이들은 모두 아이들인걸.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약으로 다시 한 번 더 태어날 거야. 그리고 내 소원도 들어준댔어.’

이렇게 생각하자 황새 씨는 곰팡이들을 몸에 태울 준비가 되었지.

“좋아! 올라타!”

황새 씨가 씩씩하게 외쳤어. 그리고 곰팡이들을 향해 날개를

뺨어 주었지. 곰팡이들이 날개를 건너 황새 씨의 몸에 올라탔어. 숨어 있던 푸른곰팡이까지 모조리 튀어나왔지. 곰팡이가 꽤 많아 서 황새 씨의 등에서부터 날개, 꼬리, 마지막에는 머리까지 온통 곰팡이투성이가 되었어.

“자, 애들아, 모두 꼭 붙잡아!”

황새 씨는 곰팡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날아올랐어.

“와아!”

곰팡이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듣자, 황새 씨는 ‘역시 아이를 배달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 하고 생각했지.

“와아! 저기 좀 봐!”

그런데 이번에는 곰팡이가 아닌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리는 거야. 황새 씨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어.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황새 씨를 보고 있었어.

“푸른 황새야!”

“좋은 징조인데!”

황새 씨는 처음에 어리둥절했지. 하지만 곧 무슨 일인지를 깨달았어. 사람들이 푸른곰팡이로 뒤덮인 황새 씨를 보고 푸른 황새라고 착각한 거지.

“황새 아저씨, 우리를 배달해 주기 전에 마을을 한 바퀴 돌아요.”

푸른곰팡이가 말했어.

“왜?”

“그래야 더 유명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황새 씨는 마을을 한 바퀴 돌았어. 온 마을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 이 멋진 푸른 황새를 보며 환호했어.

“아저씨, 이제 우리를 배달해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꼭 빵집에 들러서 푸른곰팡이 아이들을 다시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거 잊지 말고요.”

황새 씨는 푸른곰팡이가 시키는 대로 했지.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고?

푸른곰팡이 아이들은 페니실린 아이들로 다시 태어났어. 최상급 빵에서 자란 푸른곰팡이는 최상급이었어. 거기서 만들어진 페니실린 역시 물론 최상급이었고 말이야.

황새 씨는 매주 푸른곰팡이를 태우고 마을을 돌았어. 푸른 황새에 대한 소문은 곳곳으로 퍼져 나갔지. 황새 씨가 푸른곰팡이를 배달하는 날이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푸른 황새 씨를 구경했어. 황새 씨는 사람들이 나눠 주는 음식으로 황새 아가씨와 배부르게 살았지.

그뿐만이 아니었어. 푸른 황새 씨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마을도 같이 유명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어.

“푸른 황새 씨에게 훈장을 줘야 해!”

황새 씨가 사양하는 바람에 훈장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대신 황새 씨는 마을의 명예시민이 되었지.

발 빠른 사업가들은 황새 씨와 사업 계약을 맺기도 했어. ‘푸른 황새’ 과자, ‘푸른 황새’ 학용품, ‘푸른 황새’ 아동복까지, ‘푸른 황새’ 이름이 들어가는 상품을 판매하려면 황새 씨와 계약을 해야 했지.

“하늘을 훨훨 날고 싶니? 아이들의 꿈을 위해, 푸른 황새 아동복!”

‘푸른 황새’ 제품들의 텔레비전 광고에는 누가 출연을 했을까? 물론 황새 씨였지.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설 때에는 황새 씨가 푸른곰팡이들을 태우고 있었다는 얘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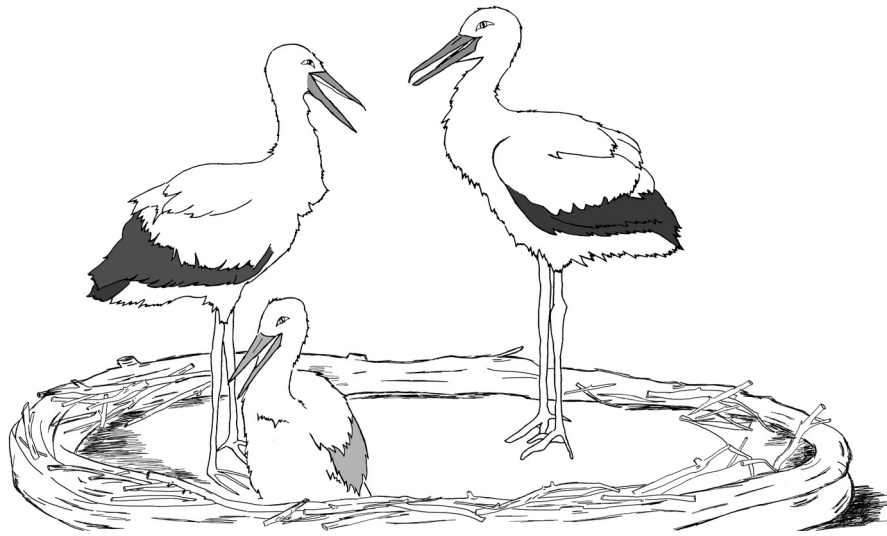
황새 씨가 유명해지면서 ‘황새 택배’도 그 덕을 톡톡히 봤어. ‘황새 택배’는 원래 흰 황새 그림이었던 회사의 상징을 푸른 황새 그림으로 바꾸었지.

“아이를 다루는 손길로 당신의 소중한 물건을 다룹니다.”

이런 문구까지 내걸면서 그야말로 대박 택배 회사가 되었다나 뭐라나.

그리고 가장 즐거운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어. 푸른 황새 씨가 그토록 원하던 대로 어느 집에 아이를 물어다 준 거야. 그 집이 어디냐고? 저기 나무 위를 잘 봐. 황새 아가씨와 황새 씨가 정답게 마주 보고 있는 예쁜 둥지 보이지? 저 둥지가 바로 그 집이야. 그리고 황새 아가씨와 황새 씨 사이에서 울어 대고 있는 저 사랑스러운 황새 아이가, 맞아, 황새 씨가 물어 온 그 아이란다.





궁금한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은 어린이. 사람과 모든 생물 그리고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재미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달팽이의 성>으로 웅진주니어 문학상을 받았어요.

# 내 낱개의 비밀

임채령

“와우, 이걸 공짜폰이 아니잖아. 이 몸이 하루만 쓰고 돌려줄게. 나중에 운동장으로 찾으러 와.”

운동장 구석에 멀뚱히 서 있는 지 벌써 20분이 지났다. 태식은 보란 듯이 땀을 흘리며 축구를 하고 있다. 내 물건을 돌려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내 핸드폰 돌려줘.’

소리가 목구멍에 갇혀 나오지를 않는다. 내가 운동장 구석에 놓인 철봉이나 이순신 장군 동상쯤 되었으면 좋겠다. 자존심 상하지 않고서 있게.

“야, 이준우 여기 와서 골대 좀 지켜라.”

‘나 공 잘못 차는데.’

목소리가 나오기도 전에 내 발은 이미 골대 쪽으로 가고 있었다. 엉거주춤 내가 골대 앞에 섰다. 어느새 태식이 녀석이 공을 몰고 이쪽으로 달려온다. 녀석이 깃발을 향해 돌진해 오는 황소 같다.

난 저 녀석을 막을 수가 없다.

퍽!

내가 얼굴로 공을 막은 건가? 볼이 터져 나가는 것 같다. 눈을 뜨지 못하겠다.

“야, 골키퍼 정신 차려. 공간다.”

텅.

“골인! 역시 태식이 녀석 공이 세다니까.”

눈물이 핑 돌았다. 아파 죽겠는데 골인이라니!

“야, 괜찮냐? 그렇게 공을 피하지. 막으려고 서 있었냐?”

태식이가 빈정대었다. 오른쪽 볼이 뜨겁다.

“경기하다 보면 이럴 때도 있는 거야. 참, 네 핸드폰 잘 썼다. 답에 또 부탁한다.”

태식이가 내 바지 주머니에 폰을 집어넣었다.

“나 갈게.”

“다음에는 제대로 붙어 보자. 이준우.”

그래, 나도 너랑 확 붙고 싶다, 강태식. 하지만 내가 참는다. 그것 말고는 별수가 없어서.

축구는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한쪽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운동장을 빙 둘러서 나왔다.

집에 오니 미술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술 선생님한테 잔소리 듣고, 뒤에 오신 수학 선생님한테 머리 몇 대 쥐어박혔다.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저녁을 차려 놓고 가셨다. 엄마, 아빠는 병원 일 마치고 늦으신댔다. 침대에 털썩 엎어졌다. 자고 싶었다. 아침까지 이대로 푹 자 버릴까? 아직 밝은 환했다.

설핏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툑툑 드르락. 푸드득.”

장수풍뎡이 녀석이 설쳐 댔다. 녀석은 힘이 넘치는지 사육통을 기어오르려고 애쓰다가 사육통 천장에 부딪치기도 했다.

“날고 싶니? 그러고 보니 너도 나처럼 답답하겠구나. 나도 이 방이 사육통 같아. 집도 학교도 다 사육통 같아.”

나는 봉지에서 젤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껍질을 벗겼다. 향긋했다. 언젠가 먹어 본 문구사에서 파는 젤리랑 냄새가 똑같았다. 탕글탱글 윤이 나는 게 갑자기 입안에 침이 고였다.

사육통 뚜껑을 열고 젤리를 넣어 주었다.

꼬르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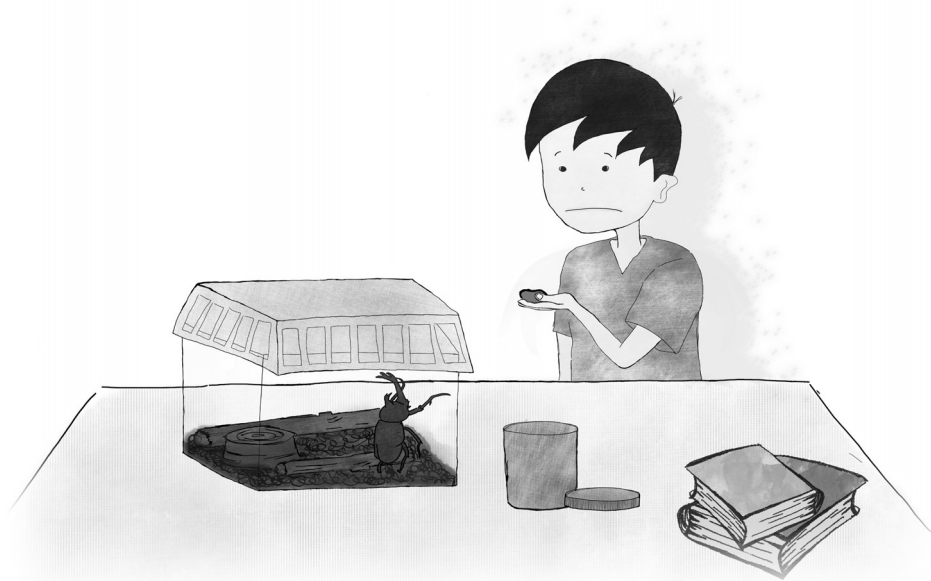
뱃속에서 나는 소리였다.

“나도 한번 먹어 볼까?”

다시 젤리를 꺼냈다. 젤리통 아랫부분을 눌러 젤리를 입안에 쏙 넣었다. 딸기향이 은은하게 나고 말캉말캉한 게 제법 맛이 있었다. 하나 더 먹을까 생각하다가 봉지 안의 설명서를 꺼내 보았다.

<주의 사항: 사람이 먹는 젤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하얀색 긴 줄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줄 스티커를 떼 보았다.



<사람이 세 개 이상 먹으면 장수풍뎅이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뭐, 뭐라구? 장수풍뎅이로 변한다구.”

곧장 화장실로 뛰어갔다.

“웁 웁!”

변기통의 물이 빨강게 변했다. 거울을 보았다. 토하려고 악을 썼더니 얼굴이 벌게졌다.

‘내가 장수풍뎅이로 변한다면?’

저 쪼꼬마한 벌레처럼? 엄마, 아빠가 나를 몰라볼 거야. 그리고 친구들도. 나는 학교를 안 다니게 될지도 몰라. 그렇게 된다면

공부도 안 하고, 태식이 같은 녀석을 다시는 안 봐도 되겠지.

내 방으로 오니 사육통 속의 장수풍뎅이가 뒤집혀서 버둥거리고 있었다.

“내가 이리 둔한 장수풍뎅이가 된다고?”

사육통 뚜껑을 열고 녀석의 빨을 붙잡아 몸을 바로 해 줬다.

“내가 둔하다고?”

“어디서 나는 소리지?”

“여기야. 네가 부러워한 장수풍뎅이. 네가 나처럼 톱밥 속에서 자고 싶다고 했잖아.”

사육통 속의 장수풍뎅이가 머리를 쳐들고 있었다.

“지금 내가 말한 거니?”

“이 방에 나 말고 누가 또 있어? 그런데 너 젤리 먹었구나. 말이 통하는 거 보니.”

“그냥, 맛있게 보여서. 설마 내가 장수풍뎅이로 변하는 건 아니겠지?”

“그게 어때서? 어쨌든 날 좀 꺼내 줘. 온몸이 근질거려. 밤마다 내가 사육통을 박박 긁어 대도 너는 잠만 자더라.”

“원래 그런가 보다 했지. 그런데 내가 너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믿을 수가 없어.”

“일단 날 좀 꺼내 달라니까. 넌 네 생각만 하는구나. 입장 바꿔 생각해 봐. 네가 요 꼬끄마한 사육통에 갇혀 있다고 말이야. 내가 무슨 장난감 벌레인 줄 아니?”

장수풍뎡이는 종알종알 쉬지 않고 떠들어 댔다. 나는 사육통 뚜껑을 열었다. 뿔을 잡고 꺼내는 동안 녀석이 고분고분해졌다.

“아, 시원하다. 시원해.”

녀석은 날개를 몇 번 푸득푸득 거리더니 이쪽 벽에서 저쪽 벽으로 횡횡 날아다녔다.

“이게 자유의 맛이라는 거구나. 난 이런 걸 원했어.”

“그렇게 좋으니?”

“고마워.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얘기해 봐. 다 말해 줄게. 그리고 네가 장수풍뎡이가 될지 안 될지는 나도 모르겠어. 내가 알기로는 세 개 이상을 먹어야 효과가 있어.”

“나도 너처럼 실컷 자고, 사육통 문을 열고 날아가고 싶어. 하지만 내가 장수풍뎡이로 변한다는 건 끔찍해.”

“예스와 노우를 분명히 해야 문제가 안 생기는데. 반만 먹으면 어떨까? 좋아, 너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젤리를 하나만 더 먹어. 아마 기대 이상일 거야.”

“믿어도 돼?”

“믿고 안 믿고는 네 맘이지. 이제 창문을 열어 줘. 나는 야간 비행을 즐기러 갈 거야.”

“다시 돌아올 거지? 아주 가면 안 돼!”

푸푸득, 날개를 편 녀석이 저녁 하늘 속으로 날아갔다.

밤새 장수풍뎡이로 변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꿈을 꾸었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사육통을 보았다. 톱밥이 불룩하게 솟아올라 있었다. 녀석은 톱밥 속에 뻗어 자고 있었다. 젤리 봉지 안에서 설명서를 꺼냈다.

〈주의 사항: 사람이 먹는 젤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주의 사항은 보이지 않았다. 그럼 그렇지. 내가 꿈을 꿨나 보다. 제법 재미가 있었는데.

‘옥, 핸드폰, 축구공, 태식이.’

어제 일들이 떠올랐다. 사육통이 옥죄어 오는 것처럼 숨이 막혔다.

“에잇.”

나도 모르게 봉지 속에서 젤리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다.

별일 없이 수업이 끝났다. 가능하면 태식기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눈길을 피했다. 드디어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문을 벗어났다. 그런데 아까부터 겨드랑이가 자꾸 가려웠다. 집에 오는 길에도 계속 가려워 한 손으로 긁으면서 뛰어왔다. 내 방에 들어와서 옷을 벗었다. 거울 앞에서 보니 겨드랑이 아래에 투명한 무엇이 있다. 가름하고 둥그스름한 모양, 날개! 날개였다. 내가 팔을 들어 올리면 가름하게 퍼지고, 팔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아래로 접혔다. 잠자리 날개보다 더 투명한 게 반짝반짝 빛이 났다. 젤리를 하나 더 먹으면 괜찮은 모습이 나올 거라는 장수풍뎅이의 말이 떠올랐다.

‘정말 날 수 있을까?’

나는 나비처럼 훨훨 팔을 저으며 천장을 향해 점프했다.



과당.

공중에 떠오르느가 싶더니 몸이 기우뚱해져 책상에 처박히고 말았다.

“아이코, 풍뎅아 이거 날개 맞아? 성능이 떨어지는데?”

녀석이 흙 속에서 머리를 들고 나왔다.

“젤리를 두 개만 먹어서 그런가? 그래도 연습하면 나아질 거야. 성능은 떨어지지만 좋은 점도 있어. 날개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

저녁을 먹고 방문을 잠근 채 날기 연습을 했다. 날개를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침대에서 살며시 발을 뺐다.

‘뺐다.’

천장에 부딪치지 않게 몸을 대각선으로 기울이고 날개를 펴서 한동안 떠 있었다. 장수풍뎅이와 나는 방 안에서 쌍으로 날아올랐다. 이것만으로도 재미있는데 녀석은 자꾸 밖으로 나가자고 나를 꼬드겼다. 우리 집이 13층인데 창문 밖으로 날아간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녀석은 또 야간 비행을 하러 갔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 내일 일을 생각했다. 일단 학교에 가서 태식이를 만나면 송 날아가서 한 대 차 버릴까? 아니야. 그럼 내가 이상해졌다 하겠지. 내 날개가 소문날지도 몰라. 그래도 애들 앞에서 슈퍼맨처럼 날아 보면 좋을 텐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늦게 잠이 들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거울 앞으로 달려갔다.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넣어 보니 비밀의 날개가 어제처럼 잘 접혀 있었다. 사람들이 날개를 못 본다니, 내가 마법사라도 된 기분이다. 사실 장수풍뎡이도 연한 속 날개의 힘으로 날지 않던가.

나는 날아서 식탁으로 갔다.

“밥 잘 먹겠습니다.”

돌아서 있던 엄마가 깜짝 놀란 얼굴이다.

“무슨 애가 소리도 없이 오니? 얼른 밥 먹어.”

“히히.”

“좋은 일 있니? 아침밥을 이렇게 잘 먹고. 그런데 너 얼굴이 왜 그래? 뭐가 묻었니?”

“아, 아뇨. 거울 좀 볼게요.”

“준우야, 너 운동을 하나 시작해야겠어. 사내 녀석이 강해 뵈는 구석이 있어야지. 엄마가 알아서 스케줄 조정할게.”

“학교 갈게요. 오늘은 빨리 가야 해요.”

“엄마가 태워다 줄게.”

나는 가방을 메고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화단을 슬쩍 날아서 건넜다. 거울 속 내 뺨에는 오백 원짜리 동전만 한 멍이 있다. 오늘 꼭 복수를 하고 만다.

학교 운동장에 오니 태식이와 톨마니들이 공을 차고 있다.

나도 가방을 던져 놓았다. ㅎㅎ, 날개를 저으며 땅에서 살짝 떠올랐다가 내려왔다. 용기를 냈다.

“나, 나도 같이 해.”

“웬일이냐? 공도 받을 줄 모르는 녀석이. 오늘은 숫자도 안 모자라는데.”

태식이랑 늘 붙어 다니는 노란 머리 경수가 말했다.

“나는 태 태식이 반대편에 들어갈게.”

내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렸다.

“어쭈! 저 자식이 오늘 밥을 잘못 먹었나? 한번 끼워 줘 봐.”

태식이가 받아 보라는 듯 멀찌감치 서서 공을 날렸다. 나는 공을 잡긴 했는데, 갑자기 공이 오니 발이 헛돌았다. 발이 꼬이며 공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으이구, 하하 꼴좋다.”

태식이가 얼른 달려와 공을 빼앗아 달아났다.

“에잇!”

나는 일어나 날개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30센티미터쯤 높게 날아서 태식이의 공을 뺏았다. 그리고 공을 차면서 확확 날았다. 반대편 골대로 갔다. 숫, 당연히 골인이다.

“야, 방금 너 뭐 한 거야?”

다들 어안이 병병한 얼굴이다. 태식이가 또 공을 몰고 나갔다. 날아가서 공을 뺏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태식이 옆으로 다가가 공을 살짝 차고는 날아서 공을 낚아채는 것이다. 내가 다시 공을 뺏었다. 그대로 몰고 가서 골대로 처넣었다. 태식이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해졌다.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야, 막아. 승부차기다. 세 번씩!”

“내가 이기면?”

“그럴 리 없어.”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마. 내 샤프, 핸드폰, 공책, 내 물건에 손대지 마.”

“좋아.”

나는 골대 앞에 섰다. 프로 축구 선수처럼 제법 폼을 잡고 서 본다. 퍽, 녀석이 공을 찼다. 내 키보다 공이 높았다. 흠, 점프. 두 팔로 공을 거뜬히 잡았다.

내 차례다. 그런데 나는 공을 차는 데는 자신이 없다. 눈 딱 감고 있는 대로 힘껏 찼다. 헉, 공이 골대 밖으로 나갔다. 두 번째 녀석의 공이 날아왔다. 나는 또 옆으로 날아서 잡았다. 녀석도 내 공을 잡아냈다. 0-0이다. 이제 마지막 승부다. 녀석도 긴장했는지 공이 골대 밖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차야 한다. 발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퍽.

내 공이 골대 그물을 흔들었다.

“와우.”

주변에 등교하던 애들이 탄성을 지르며 손뼉을 쳤다.

나는 가방을 들고 먼저 교실로 들어왔다. 애들이 책상 주위에서 떠들어 댔다.

“준우가 태식이를 놀렸다며?”

수업 시작 전에 나는 태식이 자리로 가서 내 샤프를 찾아 들었다.

“허락 없이 내 물건에 손대지 마라.”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는 당당했다. 내 목소리가 마음에 들었다.

집에 오자마자 사육통을 흔들었다. 녀석이 자는지 기척이 없다. 과외수업이 끝났다. 하늘과 방안이 온통 붉게 물들었다. 톱밥 속에서 녀석이 천천히 기어 나왔다.

웬일인지 호들갑스럽지가 않다.

“나는 이제 떠날 거야.”

“어디로?”

“숲으로 가고 싶어.”

“역시 숲으로 가는구나. 그런데 이 날개는 어찌니? 그냥 달고 있어도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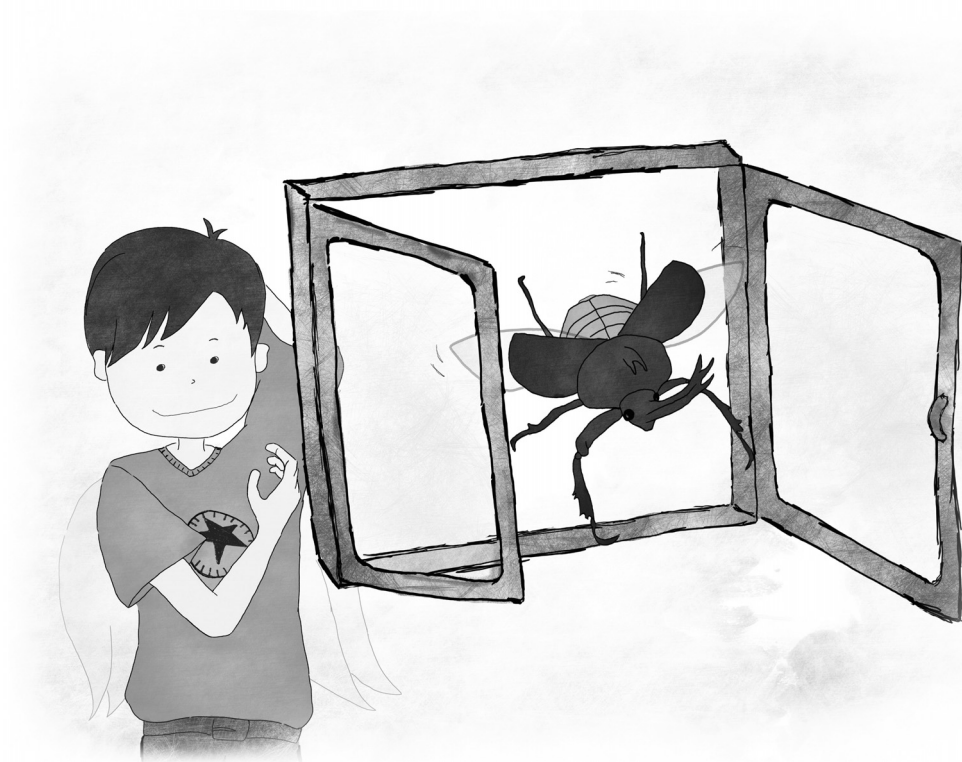
“조금씩 녹아서 며칠 안에 사라질 거야. 젤리니까 배고플 때 떼어 먹어도 돼. 그리고 진짜 날개는 네 안에 있어. 너를 자유롭게 할 진짜 날개.”

“종알종알 장수풍뎅이. 네가 생각날 거야.”

녀석이 날아갔다. 검은 점이 되어 떨어지더니 아예 보이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왔다. 문득 다시 겨드랑이가 가려웠다.

‘진짜 날개가 솟아오르려나? ㅋㅋ.’



책 읽고 글 쓰는 일이 좋아요. 그러나 생활에 쫓겨 좋아하는 일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 날에는 흥얼흥얼 슬픈 노래를 불러요. 사춘기에 접어든 딸과 상상놀이를 좋아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쓴 동화를 들려주고 싶어요.

# 우리만의 큰 세상

차숙정

“형, 바깥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까망이가 하양이에게 물었어요.

“바깥세상? 글썬? 근데 작은 몰라도 여기보다 클 거야.”

하양이는 조그만 발로 등지를 툭툭 찼어요. 하양이는 등지가 작은 것이 불만이에요.

‘아,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어.’

까망이는 바깥세상에 뭐가 있는지 아주 궁금했어요. 다리를 들고 목을 길게 빼 보았지만, 등지 밖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푸드덕 소리가 나면서 엄마가 등지 안으로 들어왔어요.

“호호, 까망아, 많이 먹어야 빨리 크지.”

엄마는 등지 밖으로 나가고 싶은 까망이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따뜻하고 말랑한 먹이를 까망이 입 안에 넣어 주었어요.

하양이와 까망이는 엄마 아빠가 주는 맛있는 먹이를 먹고 무럭 무럭 자랐어요. 하양이 날개에는 하얀색 깃털이, 까망이 날개에는

까만색 깃털이 수북이 자랐어요.

“음, 좋아. 날개가 많이 자랐어. 이제 밖으로 나가 볼까?”

아빠가 말했어요.

“이야, 신 난다.”

까망이는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드디어 바깥세상을 구경할 수 있어요.

“응? 이걸 뭐지?”

까망이는 깜짝 놀랐어요. 등지 밖으로 나오자 아주 이상한 게 있었어요. 굽고 길게 생긴 것이 등지 건너편까지 놓여 있었어요. 어느새 아빠는 건너편에 가 있었어요.

“아빠, 이걸 뭐예요?”

까망이가 큰소리로 아빠에게 물었어요.

“이거? 이걸 말이야, 흠, 그러니까…….”

아빠는 머뭇거렸어요.

“아빠, 안 들려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까망이가 아빠에게 다시 소리쳤어요.

“리바통이야.”

한참 있다가 아빠가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자 엄마가 킁 소리를 내면서 웃었어요.

“리바통? 형, 이름 참 웃기지?”

까망이가 키득거렸어요.

“이쪽으로 건너와. 여기에 맛있는 씨앗이 있어.”



건너편에서 아빠가 날개를 흔들었어요.

“씨앗?”

까망이는 귀가 솔깃했어요.

“그럼, 맛있는 씨앗이 잔뜩 있지.”

엄마가 말했어요. 까망이는 재빨리 ‘리바통’ 위로 뛰어갔어요.

“아이코!”

까망이는 ‘리바통’ 아래로 떨어질 뻔했어요.

“서둘지 마. 여기는 앞으로 걸으면 안 돼. 옆으로 걸어야 해.”

엄마가 먼저 ‘리바통’ 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리바통’ 을 잘 건너야 해. 아래로 떨어지면 큰일이야.”

엄마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까망이는 ‘리바통’ 아래쪽을 내려다 봤어요. 거기에는 똥, 떨어진 깃털, 씨앗 껍질 등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어요.

“우, 더러워.”

까망이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발가락으로 ‘리바통’ 을 꼭 움켜쥐어야 해. 그리고 하나아 두울, 하나아 두울.”

엄마의 구령에 맞추어서 히양이와 까망이는 ‘리바통’ 위를 옆으로 걸었어요. 하지만 발가락으로 ‘리바통’ 을 움켜쥐고 옆으로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조금 걸으니까 발에서 열이 확확 났어요.

“아유, 발 아파. 아빠, 나는 법부터 가르쳐 주면 안 돼요?”

까망이는 건너편에 있는 아빠에게 불쌍한 얼굴을 지어 보였어요.

“안 돼. 아직은. 먼저 ‘리바통’ 을 건너는 법부터 배워야 해.”

아빠가 무겁게 말했어요. 하양이와 까망이는 아무 말도 못 했어요. 아빠가 무겁게 말을 하면 엄마도 꼼짝을 못 해요.

드디어 ‘리바통’ 을 건너서 무사히 아빠가 있는 곳으로 왔어요.

“애들아, 수고했다.”

아빠는 씨앗이 가득 있는 곳에 있었어요.

“우와! 맛있는 냄새가 나!”

까망이는 맛있는 씨앗 냄새를 맡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곳에는 껍질이 없는 씨앗, 두꺼운 껍질이 있는 씨앗, 동그란 씨앗, 길쭉한 씨앗들이 가득 있었어요. 까망이가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발이 푹 들어갔어요. 발을 움직일 때마다 까끌까끌한 느낌이 들었어요. 까망이는 맛있어 보이는 씨앗 하나를 집어서 먹어 보았어요.

“톡톡, 오도독, 으윽, 아파.”

엄마 아빠가 먹여 주던 씨앗은 따뜻하고 말랑말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씨앗은 아주 딱딱했어요. 까망이는 부리가 아팠어요.

“엄마, 엄마가 먹여 줘요. 네?”

까망이는 부리로 엄마를 콧콧 찌르고 입을 크게 벌려 보았어요.

“안 돼. 이제 네가 씨앗을 먹어야 해.”

“잉잉.”

엄마는 까망이에게 씨앗을 먹여 주지 않았어요. 이제 까망이는 혼자서 씨앗을 먹어야 해요.

“애들아, 껍질을 잘 까서 먹어야지.”

엄마는 처음 딱딱한 씨앗을 먹는 하양이와 까망이가 걱정되었어요.  
“이렇게 혀로 굴려서.”

엄마가 껍질이 있는 씨앗 하나를 집어 들고 혀로 어떻게 까서 먹는지 보여 주었어요.

“난 그냥 껍질 없는 것만 먹을래. 그래야 많이 먹지.”

욕심 많은 하양이는 먹고 또 먹었어요.

“여기 정말 좋아!”

모이주머니가 빵빵해진 하양이는 행복했어요.

“어, 이걸 뭐지?”

하양이 눈에 뭔가가 들어왔어요.

“뭐야 이걸?”

부리로 힘껏 잡아 뜯었어요.

“악, 뭐가 이렇게 단단해?”

하양이는 부리가 얼얼했어요. 하양이 눈앞에 있는 것은 ‘리바통’ 보다 훨씬 가늘었지만 단단했어요. 그리고 매끈하게 생겼어요.

“엄마, 저건 뭐야?”

하양이가 씹씹거리면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그건, 그건, 음, 그건 말이야……. 그래, 그건 ‘후라락’ 이야.”

엄마는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하더니 하양이에게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자 아빠가 피식거리며 웃었어요.

“후라락?”

하양이는 부리를 비비면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까망이도 주위

를 두리번거렸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후라락’이 있었어요. 게다가 ‘후라락’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똑같이 생긴 ‘후라락’이 일정한 사이를 두고 줄지어 있었어요.

“하나아, 두울, 세엣, 네에엣, 아주 많다!”

‘후라락’을 세어 보던 까망이는 눈이 빙빙 돌았어요.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그리고 저 멀리 위쪽에도, 보이는 곳마다 ‘후라락’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어? 등지 뒤에도 ‘후라락’이 있었네.”

까망이는 깜짝 놀랐어요. 등지 안에 있었을 때는 ‘후라락’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등지는 ‘리바통’과 ‘후라락’ 사이에 끼워져 있었어요. 이제야 왜 등지 밖으로 나왔을 때 ‘리바통’이 먼저 보였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근데, 아빠. ‘후라락’은 왜 있어요?”

까망이가 물었어요.

“우리가 있으니까 으음, 그러니까 말이야, ‘후라락’은 말이야. 그래, ‘후라락’은 우리를 지켜 주는 거야.”

아빠가 떠듬떠듬 말을 했어요.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는 우리만 살아요?”

하양이가 조그만 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하지, 여기는 우리만의 세상이니깐 말이야.”

아빠가 가슴 깃털을 세우면서 말했어요.

“이렇게 넓은 데에 우리만 산다고요? 와아, 신 난다.”

하양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까망아, 이제 한번 날아 볼까? 날개를 펼쳐 봐.”

아빠가 까망이를 보고 말했어요. 까망이는 날개를 폈어요. 까망이의 날개 끝에는 비행 깃털이 촘촘히 달린 것이 보였어요.

“날개를 앞뒤로 저어 봐. 이렇게.”

아빠가 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까망이는 아빠처럼 날개를 저었어요.

“더 세게! 힘을 줘!”

아빠가 크게 소리쳤어요.

“아, 아빠, 나 좀 봐, 나, 날아요.”

날개를 세게 흔드니까 까망이의 몸이 붕 날았어요.

“와아, 내가 날았어.”

까망이가 신이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뒤를 따라 하양이도 날았어요. 하양이와 까망이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후라락’ 까지 갔다가 왔어요.

“형, 우리가 저기까지 갔다 왔단 말이야?”

까망이는 위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저 높은 곳까지 날았다는 게 아주 자랑스러웠어요.

“잘했어. 이제 ‘후라락’ 을 잡는 법을 가르쳐 주마.”

아빠는 ‘후라락’ 을 잡는 법을 가르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후라락’ 을 잡는다고요?”

하양이와 까망이는 깜짝 놀라서 서로 바라봤어요.

“먼저 발가락을 펴 봐.”

하양이와 까망이는 한쪽 발을 들어서 발가락을 꼭 펴 보았어요.

“두 번째 발가락이 가장 길지? 그 발가락으로 ‘후라락’을 꼭 잡아, 그다음에 다른 발가락으로 뒤에 있는 ‘후라락’을 잡아. 자, 봐라.”

아빠는 푸드덕 날더니 ‘후라락’에 착 달라붙었어요.

“와아. 아빠, 최고다.”

까망이는 아빠가 정말 멋있게 보였어요.

“이제 너희도 해 봐. ‘후라락’은 꼭 두 개씩 잡아야 해!”

“내가 먼저 할 거야.”

하양이는 아빠처럼 푸드덕 날아서 ‘후라락’에 달라붙으려고 했어요. 두 번째 발가락으로 ‘후라락’을 붙잡았지만, 주르륵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끼끼룩, 끼끼룩.”

까망이가 킁킁거렸어요.

“너도 해 봐, 어디 쉬운가 보자.”

하양이 얼굴의 깃털이 까칠해졌어요. 까망이는 ‘후라락’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까망이도 ‘후라락’을 못 붙잡고 주르륵 미끄러졌어요.

“봐, 봐, 으하하.”

하양이가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하양이와 까망이는 ‘후라락’을 잡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아빠처럼 멋지게 ‘후라락’에

달라붙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후라락’에 매달릴 때마다 주룩주룩 미끄러졌어요.

“애들아, 목마르지 않니? 물 마시러 가자.”

엄마가 말을 하지 않았다면 하양이와 까망이는 온종일 ‘후라락’을 잡는 연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리로 와. 여기에 물이 있단다.”

엄마가 말한 곳에 샘이 있었어요. 그 샘은 아주 작아서 물을 한 번 마시면 없어질 것 같았어요.

“다 마셔 버리면 어떻게 해요?”

까망이는 물이 없어질까 봐 걱정되었어요.

“이곳의 물은 마르는 일이 없어. 좀 작기는 해도 말이야.”

아빠 말대로 샘의 물은 마시고 나면 곧 채워졌어요.

“왜요?”

까망이가 물었어요. 아빠는 샘의 뒤쪽을 부리로 가리켰어요. 샘은 ‘후라락’에 끼워져 있었는데 뒤쪽에 커다란 물기둥이 있었어요. 물기둥이 있어서 샘의 물이 줄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자, 이제 몸을 털러 가자. 아빠를 따라와.”

“몸을 털어요? 어떻게요?”

까망이가 물었지만, 아빠는 대답도 하지 않고 푸드덕 날더니 ‘후라락’에 착 달라붙었어요.

“자, 날아와서 이 ‘후라락’을 잡아.”

하양이는 아빠가 가리키는 ‘후라락’을 잡았어요.

“우와, 미끄러워.”

까망이는 조금 미끄러졌어요.

“괜찮아. 거기서 기다려. 자, 이번엔 날아서…….”

아빠의 말에 따라 하양이와 까망이는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다  
가 ‘후라락’ 을 붙잡았다가를 몇 번이고 했어요.

“헉헉, 어디야? 도대체.”

까망이는 숨을 헐떡였어요.

“여기야. 도착했다.”

그곳에 물을 마시던 샘보다 훨씬 크고 깊은 샘이 있었어요. 샘에  
는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아빠가 날개를 퍼덕이자 물이 출렁거리  
면서 밖으로 흘러내렸어요.

“어? 아빠, 여긴 조금 전에 갔던 샘 옆이잖아요?”

하양이는 여기까지 힘들게 온 것이 괜한 짓 같았어요. ‘후라락’  
세 개 떨어진 곳에 물을 마시던 샘이 있었어요.

“하양아, 그럼, 넌 바로 여기까지 왔으면 좋았겠니?”

아빠가 무겁게 말을 했어요.

“그래도 겨우 ‘후라락’ 세 개만 지나면 되는데.”

하양이는 고개를 돌리고 부리를 앞으로 빼죽 내밀었어요.

“하양아, 넌 날개를 가졌어. 아주 멋진 날개를. 날개를 가졌으면  
날아다녀야지.”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날기 위해서 날개가 있는 것이니까  
요. 하양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맞아, 나도 날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날아다녔지.”  
까망이는 힘들었지만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것이 좋았어요.

“자, 몸을 터는 법은 엄마가 가르쳐 줄 거야.”

아빠가 엄마 뒤편으로 갔어요.

“먼저 머리를 물속에 담가. 그리고 날개를 터는 거야, 이렇게.”

엄마가 몸을 털었어요.

“아, 차가워.”

차가운 물방울이 튀었어요.

“다음엔 엉덩이를 담가. 이렇게.”

엄마는 엉덩이를 물속에 푹 담갔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엄마가 몸을 털기 시작하자 또 물방울이 튀었어요.

“으아, 차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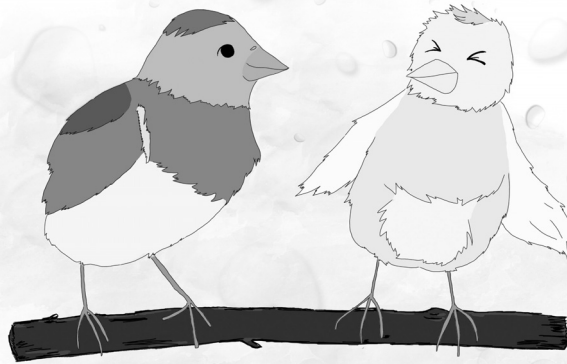
물방울을 맞고 까망이는 빨리 몸 털기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할래.”

하양이와 까망이는 서로 먼저 하겠다고 다투었어요. 할 수 없었던 깃털 뽑기 내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깃털을 뽑은 까망이가 먼저 몸 털기를 하게 되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하는 몸 털기에 까망이는 좋아서 어쩔 줄 몰랐어요. 물속에 몸을 푹 담갔다가 나와서 부르르 몸을 털면 몸에 있는 물방울이 여기저기로 튀었어요. 그리고 몸을 털 때마다 온몸의 깃털이 크게 부풀어 올랐어요.

“와, 내가 형보다 더 크다.”

까망이는 몸이 커지니까 신이 났어요.



“웃기지 마, 내가 더 커.”

하양이도 부르르 몸을 터니까 아빠처럼 몸이 커졌어요.

“다시 털어야지.”

까망이는 다시 물에 몸을 담갔다가 몸을 털었어요.

“우와, 재밌다.”

하양이와 까망이는 찰박거리며 계속 몸 털기를 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아빠가 말리지 않았으면 끝도 없이 몸을 털었을 거예요.

“자, 날아올라서 here를 붙잡고.”

하양이와 까망이는 아빠의 말에 따라서 이쪽 ‘후라락’에 매달렸다가 저쪽 ‘후라락’에 매달렸다가를 몇 번 하다가 물 마시는 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씨앗이 있는 곳까지 왔어요. 이제 ‘리바

통' 만 건너면 등지예요.

“여기까지 날아와 봐.”

아빠가 ‘리바통’ 가운데까지 날아갔어요. 그리고는 옆으로 걸어서 등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양이와 까망이도 아빠가 앉았던 곳까지 날아갔어요. 그리고 아빠처럼 옆으로 걸어서 등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등지 안으로 들어온 까망이는 하품을 했어요.

“아빠, 아빠, 난 여기 정말 좋아.”

“그렇게 좋아?”

“응. 좋아. 여기저기 갈 데가 참 많아. ‘리바통’, ‘후라락’, 아아 함.”

까망이는 눈을 비비더니 잠이 들었어요. 엄마와 아빠는 잠든 까망이를 행복하게 바라보았어요.

“애들이 아주 신 났었나 봐요. 여기를 좋아해서 다행이에요.”

엄마가 속삭였어요.

“애들한테는 여기가 큰 세상이거든.”

아빠가 눈을 찡긋거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후라락’이라는 이름을 지었어? 좀 웃기지 않아?”

갑자기 생각난 듯 아빠가 말했어요. 엄마의 표정이 새침해졌어요.

“아니, 그럼, ‘리바통’ 은 안 웃기는 줄 알아요?”

“아, 아, 갑자기 물어보니 얼마나 당황이 되던지. 그래도 이름이 있으니까 좋았어. 애들한테 가르쳐 주기도 좋았고 말이야.”

그제야 엄마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씨앗이 있는 곳하고 몸 털기를 하는 곳도 미리 이름을 지어  
둬야겠어요. 아까처럼 당황하지 않게요.”

엄마가 말했어요.

“맞아, 그래야겠어.”

아빠는 일이 또 하나 늘었다 싶었어요. 안 그래도 할 일이 많거  
든요.

“몸 털기는 일찍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애들이 좋아하니까.  
‘후라락’을 잡는 연습은 언제 하지? 아직 애들이 ‘후라락’을 잘  
못 잡는 것 같던데, 나는 연습도 더 해야 할 것 같고.”

아빠는 할 일을 생각하느라 바빴어요.

“아참, 몸 털기 물은 어찌죠? 깨끗한 물로 갈아 놓을까요?”

엄마는 몸 털기 물이 걱정되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요즘 많이 게을러진 거 같아. 전에는 물을 자주  
갈아 주더니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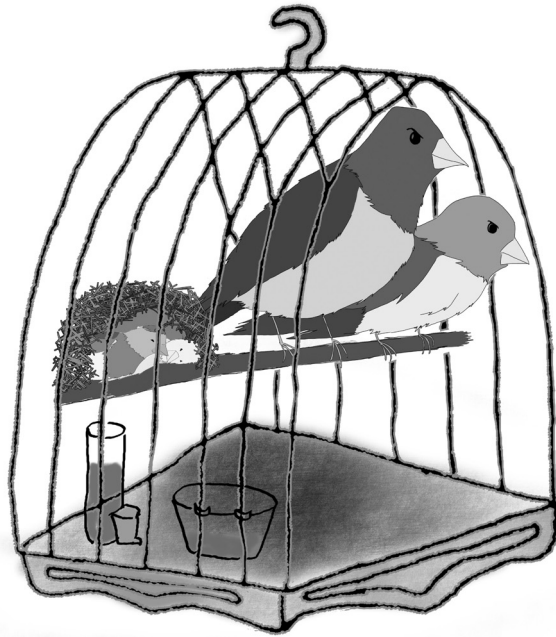
엄마 새와 아빠 새는 불만에 가득 찬 표정으로 주인아주머니를  
바라봤어요.

“응? 누가 내 이야기를 하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주머니가 두리번거렸어요.

“아유, 예쁜 것들.”

새장 속의 새가 눈에 들어오자 아주머니는 귀엽다는 듯이 중얼  
거렸어요.



**차**속정

이 세상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글을 쓰고 있어요.

## 동화본색

2011년 9월 9일 발행

발행 및 편집인 동화본색

지 은 이 김만경, 김삼선, 호박감자 김윤희, 김종숙,  
김한나, 박민애, 박이랑, 손혜원, 안미란,  
이경미, 임제다, 임채령, 차숙정

표지그림 김한나      본문그림 김소정

인 색 디자인 미감

※ 이 책은 2011년 **BSIF**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